

## “동성애 인권 주장한 인권위, 종교교육의 자유는 침해”

동반교연, 기독교대학에 대한 최근 인권위 권고 비판  
인권위, 종교과목 의무화 종교 자유 침해 판단  
하지만 대학은 이수 의무 알렸고 학생이 입학  
인권위 권고는 헌법상 종교 자유 위반하는 것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 기독교대학이 학생들에게 종교과목 수업을 의무화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대체 과목 개설 등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학 교수들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인권위 권고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동반교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24일 서울지역 기독교대학(이하 피진정대학)이 종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한 것을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동반교연은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 운영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진정대학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입학 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종교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의 예배, 선교, 교육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교육관개치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또 교육부가 종립대학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기반하여 종립대학의 예배, 선교, 교육 등의 실현을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교 학생에겐 대학 입학시 자율적인 대학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종립대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은 것이며, 이에 동의한 학생들은 평가방법과는 상관없이 필수 종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며 “입학할 때와는 달리 입학 후 필수 종교과목 수강을 거부하는 것은 약속을 어긴 행위이다. 또 이것에 인권위가 개입해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반교연은 “2021년 5월 24일에는 인권위가 대법원 판결(96다37268)조차 무시

하면서 단순히 출석만을 요구하는 채플마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채플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기당 24번의 채플에 참석하도록 하고, 채플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며 “미국의 기독교 대학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종립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조차 인권이라 주장하는 인권위는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건전한 윤리도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결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교연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패륜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인권이라 주장하고, 사회 기본이 되는 가정을 해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과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등 인권위가 마치 중국 문화혁명시대 홍위병과 같이 날뛰고 있어 돌아킬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이데올로기적 실패가 지난 후, 국민에게 돌아갈 그 모든 폐해에 대한 책임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인권을 주장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좌충우돌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부산·경남·함경북도, ‘신사 참배 거부’와 ‘3·1운동’ 중심으로 확인

일본 기독교 포교 실패... 선교 지도 분석을 통한 역사적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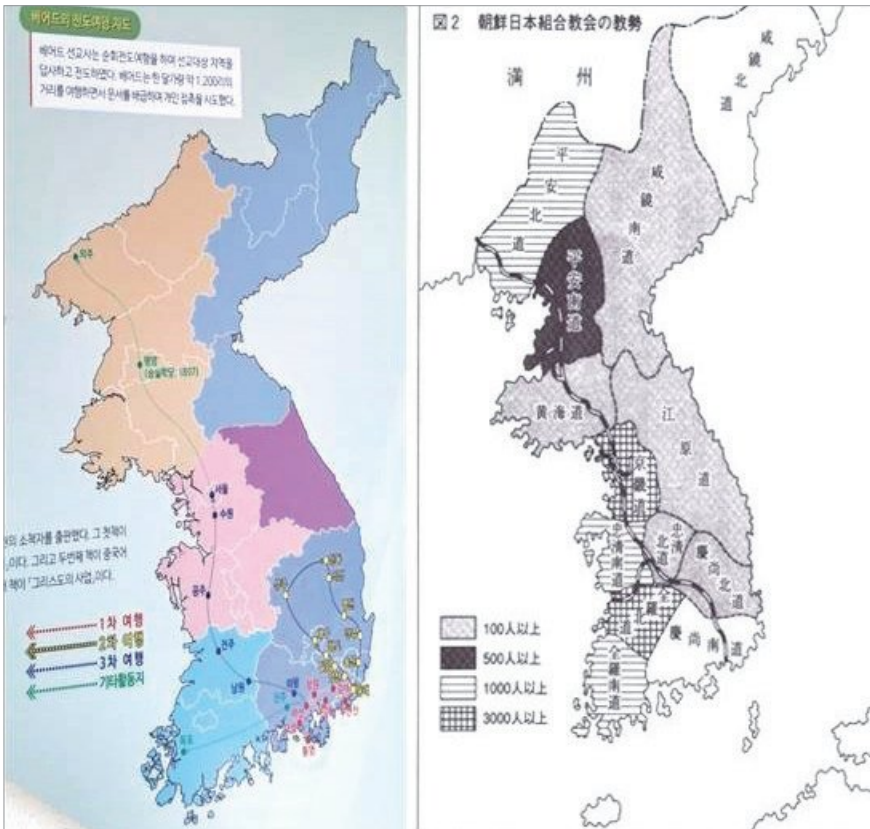
한일문화연구소(소장 김문길 부산외대 명예교수)는 최근 일본 선교 지역과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 지도를 분석한 결과,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3·1운동이 가장 강하게 일어난 지역이 부산, 경상남도, 함경북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한일 강제 합병 이후 한국의 종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조선총독부는 일본 기독교를 한국에 포교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약화하고 일본식 종교로 변질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일본 기독교는 하나님을 천황으로 칭하며, 조선총독부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아 전국적으로 포교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 기성교회를 인수하며 세력을 확장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 기독교 세력이 미국 선교사가 설립한 조선 기독교보다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경남·함경북도 지역에서는 일본 기독교의 포교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본 기독교의 선교 활동이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3·1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부산에서는 일신 기독교 여학교를 중심으로 강력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일본 기독교가 천황을 하나님으로 칭하며 교회 예배에 천황 참배를 강요하자, 부산·경남·함경북도의 기성 교회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다.

당시 일본 기독교 신자의 90%는 구미아이(組合) 교회 소속이었으며, 총회장이었던 에비나 단조(海老名 彈正)의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을 학살하고 귀와 코를 베어 전리품으로 삼은 다치바나(立花) 왜장 중 한 명이었다.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는 일본 기독교의 주요 포교 지역은 경기도와 전라북도다. 3·1운동 당시 해당 지역에서 3000명 이상의 신자가 활동했다. 그다음으로 전라남도(500명), 경상북도, 강원도 순으로 일본 기독교 세력이 확산됐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친일 세력도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부산·경남 지역은 초기 선교사들의 전도 방식과 신앙 교리의 영향으로



일본 구미 아이교회 선교 지역과 부산·경남·호주 선교사 선교 지역.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이 활발했다. 이 지역에서는 보수주의·절대주의 신앙을 강조한 호주 선교사들이 활동하며, 신앙적 이유로 일본 기독교의 포교에 강하게 저항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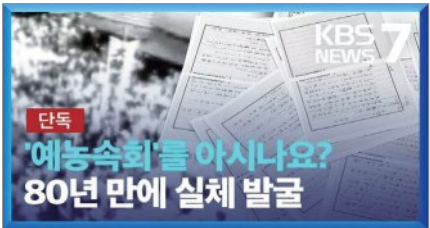
김문길 소장은 “1910년 한일 강제 합병 이후 3·1운동이 발생한 지도 올해로

106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도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이 존재했다”며, “이는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 교리와 선교 방식이 지역별 정신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내려 기자

## 감리교 신자들 조직 ‘예농속회’ 항일 독립투사, 최근 독립유공자 인정돼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이하 진화위)가 진실 규명한 사건 20건 중 진실 규명대상자 7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예농속회(禮農屬會) 항일독립운동 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 존재를 진화위에서 처음으로 발굴한 사례다.



2022년 관련 보도 화면. ©KBS

예농속회는 예산농업학교 출신의 감리교 신자들이 1939년 6월 일제의 지배를 부정하고 민족의식 고양 및 조선의 독립을 위해 조직해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모임을 개최했다. 1942년 예농속회가 일제에 의해 발각돼 김희운 등은 징역 3년~2년 형을 선고받았다.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사건 대상자 7명 중 5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

이 밖에 ‘김안배의 신민당 군자금 모금 운동’은 제2기 진화위에서 첫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으로 진화위 권고가 이행된 첫 사례다. 202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됐다. 김안배는 1920년대 대한신민단 단원으로 함경도 지역을 무대로 군자금 모금과 단원 모집 활동을 하다가 1921년 경찰에 체포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윤상형의 항일의병운동’은 진화위에서 김윤부대 명부에서 스물한 살 의병 윤상형의 존재를 확인해 구한말 주조지를 추적하는 등 사료를 통해 활약상을 밝혀낸

사건이다. 2024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됐다. 윤상형은 1907년 12월경부터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의병장 김윤이 이끄는 의병부대(167명으로 구성) 등에서 일제의 경찰기관, 통신 기관 등을 공격하거나, 일진회 회원 등 친일 세력을 처단하는 활동을 하다 1909년 체포되어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진화위는 위의 사례 이외에도 항일독립운동의 행적이 밝혀진 건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2025년 31절 106주년을 기념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항일독립운동으로 진실규명된 분들이 국가로부터 마땅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일독립운동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화위는 2021년 5월 27일 조사개시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항일독립운동 분야에는 60건이 조사개시 되어 현재까지 20건이 진실규명 됐다.

노형구 기자

디앤아이한라

# 계약금 2천만원대로 입주시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주거단지 - EFETE 용인 둔전역 에피트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중!

용인 둔전역 에피트 PREMIUM 4

01  
용인에 다시 없을  
4억원대(84㎡)

02  
계약금 5%  
입주까지 2천만원대

03  
6개월 후  
전매 가능

04  
전체평단가  
1,417만원

예약방문고객상품권증정

신세계 상품권

분양 1688.9654

68㎡A/B / 84㎡A/B / 101㎡ 아파트 총 1,275세대

이제는 전세시장 임 시 완

세종시 KOREA Trust (주)K개발 사 N. 디앤아이한라 한라 NISOS







#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국가 위기상황 알린 고발문”

[인터뷰] 국민대 법대학장 이호선 교수

기독 법조인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이 최근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엄연한 통치 행위”라고 했다.

이 교수는 얼마 전 있었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평가하면서 “이 시대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는 고발문”이라며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전시와 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문헌적으로 헌법상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 맞다”며 “하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자적처림 간첩단 사건 등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 낱낱이 드러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계엄 요건은 폭동 등 경성 위기만을 규정했다. 하지만 누구보

다 많은 정보를 갖춘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심각한 내상을 입은 연성 위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경에서 등장하는 파수꾼은 가장 높이 올라가 멀리서 오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역할”이라며 “성안 백성들은 바깥 상황을 알 수 없듯이, 윤 대통령이 파수꾼으로서 국가안보 상황의 위기를 직감해 내린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최후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던 것”이라고 했다.

이호선 교수는 또한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제가 전국 법대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 폭거 행위를 입법 독재라고 봤다”고 했다.



이호선 교수. ©CHTV 김상고 PD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행보는 사실상 범죄주의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때 구술한 것처럼,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거대 야당의 행보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이호선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

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과 절차적 흠결도 지적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이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국회 소추인단 측 변호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

을 맡은 재단 소속 변호사다. 이는 일반 재판이었다면 재판관 제척 사유”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그 재판관들은 재판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며 “조선시대도 상피제도에 따르면, 재판관이 원고피고 변고인단과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재판을 피하도록 했다. 재판 회피도 하지 않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다. 세계적으로 오명을 지우기 어려운 ‘K-재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또한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에 대한 송부촉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증인신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확인할 경우 심판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한재가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 관련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현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국

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호선 교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인민노련’ 출신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성향을 지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에는 헌법수호청이 있어 체제에 위협이 되는 공직자는 임명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 헌법수호청이 있었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판사도 못됐을 사람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비상계엄이라는 표피적인 현상만 보고 처음엔 탄핵 인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현재의 무리한 법적 절차 논란 등으로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106년 전 3.1운동은 장로교회가 주도”

한장총 3.1절 기념예배… 권순웅 대표회장 설교·임희국 교수 특강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3.1운동 106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주 안에서 외친 3.1운동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순서에서는 이권재 오산시장의 축사와 전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인 임희국 교수가 ‘3.1운동과 장로교회’란 제목으로 특강을 전했다.

권순웅 목사는 “106년 전 일어난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으며, 전국의 장로교회 교인들이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했다”면서 “3.1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요, 성경적 정의 개념의 실현이며, 성경적 민족주의의 발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3권 분립의 민주정치 체제를 수호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3.1운동 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복음적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희국 교수는 독립초기 안동교회 박성봉 장로와 이상재 선생,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 선생 등 장로교인 3인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서울 북촌의 박성봉 장로 가정에 모여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한 것을 볼 때 당연히 그 안에는 기독교적 신앙정신으로 ‘정의·평화·민족자결’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3.1운동을 장로교회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1운동이 일어난 계기 역시 당시 미국 윌슨 대통령의 특사와 상해에서 만난 장로교 지도자 3인(김규식 사병호 여운형)이 국제무대에 한국의 독립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이와 같이 당시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된 장로교회의 조직망을 활

용해 총회와 노회, 교회로 전해지면서 장로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다”며 “전국의 37개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전국의 국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했다.

또한 당시 독립운동은 기독교정신에

임각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철저히 게 비폭력주의, 평화주의를 지향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장로교 총회와 노회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임 교수는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기념예배에선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예장 예경 총회장)의 사회

로 공동회장 안병재 목사(예장 합동회의 총회장)의 기도와 주다산교회 블레싱 소년소녀합창단의 특송, 부회장 원형득 장로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또 권순웅 대표회장의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을 하고 증경대표회장 천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진영 기자



한장총 3.1절 기념예배 참석자들이 권순웅 대표회장의 선창에 따라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한장총



한장총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한장총

PRUGIO

회사보유분 20세대

파격지원혜택

(2025.01.01~01.17 한시적용)

계약금 500만원 (1차)

2월 23일 이후 전매가능

반도체클러스터 최대수혜단지

3,724세대 미니신도시 (1단지 1,681세대)

단지내 에버랜드 조정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잔여세대 마감임박

계약금 500만원 (1차)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84A 평면도

PRUGIO

총 3,724세대 미니 신도시 1단지 1,681세대 분양중

59㎡A·B / 84㎡A·B·C

1544-7780

※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시행위탁사, 시공사, 시행사와 무관합니다.

## “유니버설디자인법, 결국 동성결혼으로 이어질 것”

기공협, 법안 철회 촉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기공협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노약자·성별·연령·국적 등을 넘어 차별 없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를 제안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또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시설물에 공

공성을 향상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기공협은 “오하리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중의 하나가 성중립화장실이다. 이는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의 성이나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성중립화장실 설치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기공협은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UN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N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법치의 근간인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한 이미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는 여성의 안전권 침해와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따라서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창세기 바르게 읽기, 무신론시대 바른 신앙교육 방법”

대한기독교교육협회·토비아선교회,  
2025년 사순절 목회사역 줌 세미나 개최

대한기독교교육협회이사장 신상범 목사가 토비아선교회(대표 김덕진 목사)와 공동으로 최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 간 순례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2025년 사순절 목회사역 줌(Zoom)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사순절 묵상집을 목회에 활용하고자 하는 담임목사, 성경공부와 캠프, 순례를 사역에 적용하려는 교육목회자, 그리고 다음세대와 함께 말씀과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교사들을 대

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먼저, 강신덕 목사(토비아선교회, 살롬교회)가 ‘창세기 신앙의 중심〈죽장의 길〉 사순절 묵상집과 튀르키예 동부 죽장의 길 순례 사역에 대해 소개했다.

강 목사는 “무신론자들이 증가함으로 무신론자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는 무신론 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며 “대응 방안에는 대의적인 변증과 바른신앙교육에 있다”고 했다.

특히 “창세기 바르게 읽기는 무신론시대 바른 신앙교육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오늘날 공격적인 무신론 시대를 넘어서 무신론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는 시대에 신실한 창세기 읽기는 바르고 굳건한 신앙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2025년 사순절 창세기 1-24장 ‘죽장의 길’은 공격적인 무신론시대 교회의 신실한 신앙 지키기가 될 것”이라며 “창세기 죽장의 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한 채 악이 번성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르친다”고 했다.

두 번째로 ‘건강한 하나님 신앙을 배우는 <유일하신 하나님> 교재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정부선 전도사(토비아선교회, 살롬교회)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앙의 거대한 세상 속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며 살았음을 전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거짓된 신들과 모든 것들, 하나님 외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된 것들 그리고 하

나님 대신 내상을 차지하고 주인이 된 것들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2025년 사순절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신앙을 지켰던 성경의 사람들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순례와 성경공부의 통합 <순례 캠프> 교재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조문섭 목사(토비아선교회, 서울교회)는 “왜 순례인가.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살아갈 나의 이야기로서 기독교 역사와 신앙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토비아 순례의 특징으로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의 의미 있는 장소들

찾아 그곳에서 신앙의 역사를 이룬 인물들(예수님 포함)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살피고, 그들의 길을 따라 걷는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통찰을 얻는 여행”이라며 “토비아 순례캠프 교재의 특징은 성서의 이야기를 배우고, 순례 현장을 직접 걸으며, 공동의 경험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토비아 순례캠프 운영엔 세 가지로 △가족이 함께 하는 순례: 부모가 순례 가이드 △교회학교에서 진행되는 순례: 3주간의 성경공부와 1번의 순례 △연합으로 진행되는 순례: 거점을 중심으로 학생 주도형 순례를 실시 등이 있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 기쁨의교회, 방학 기간 주일학교 아이들 신앙·학습 지도

‘푸른초장스쿨’ 통해 자기주도학습, 큐티, 성경통독 등 진행

경기도 용인시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가 주일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4주간 푸른초장스쿨을 진행했다.

교회 측은 “방학기간 교회에서 영적인 보호를 받으며 훈련받기를 지원한 총 16명의 학생들은 스스로 시간관리를 하고, 매일 자기주도학습과 기도, 큐티, 성경통

독을 통해 신앙과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했다.

푸른초장스쿨은 방학이 되면 자녀들의 미디어 노출과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시편 23편의 푸른초장과 같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다음세대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장

을 제공하고자 작년 여름방학에 처음 진행했다고 한다.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푸른초장스쿨에서는 비전과 사명특강, 플래너를 통한 시간관리 훈련, 큐티 및 성경통독 시간이 마련됐다. 교회 측은 “무엇보다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부모도 우리 선생님들이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돕고, 또 인격적 관계성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초등 5학년인 한 학생은 “푸른초장스쿨이 시작되기 전 평소엔 집중력도 좋지 않고 학업에 부담도 느껴 시간관리를 잘할 수 있을거라 걱정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 학생은 ‘플래너(계획표) 최고상’을 받았다고 한다.

교회 측은 “조별로 이뤄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가 도전받고 격려를 받으니, 방학 숙제를 2배 빨리 마치게 되었고, 평소엔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도 1시간 자기주도학습을 집중해서 잘 따라갔다”며 “이후 설문을 한 결과 다음 번에 3시간 이상 자습을 원하는 학생이 50%가 넘었다. 이번엔 참여했던 학생들 또한 다음 기회에 각 그룹에서 도우미로 섬기면서 다른 학생들의 자기관리를 돕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푸른초장스쿨에서는 ‘변화선포문’을 새롭게 진행했다. 변하고 싶은 말, 습관, 성품을 매일 아침과 오후 반복적으로 입술로 선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기



기쁨의교회가 주일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4주간 푸른초장스쿨을 진행했다. ©기쁨의교회

위함이다.

초등학교 6학년 이모 학생은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던 안 좋은 습관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의호 담임목사는 “요즘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로 인해 방학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이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교회가 사역자, 교사, 부모가 함께하는 ‘3중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가치를 발견해 영성과 지성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기쁨의교회 푸른초장스쿨에 참여한 학생들이 성경통독을 하고 있다. ©기쁨의교회

의미 있는 사역”이라고 전했다.

교회 측은 “사역자와 선생님,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전인격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 도우며,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계속적으로 준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 연세대에 30억 원 기부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는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가 연세발전기금으로 30억 원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연세대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학문적 도전과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고, 미래 교육·연구 환경을 혁신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달 27일 연세대 총장실 부속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신학73)와 안병광 장로회장이 참석했다.

이영훈 목사는 “연세대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인류애를 실천할 인재를 양성하고, 초학제 융합 연구 및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연세발전기금은 학교가 수행하는 다



이영훈 목사(왼쪽)가 윤동섭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연세대

양한 교육·연구·사회공헌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핵심 기금으로, 이번 기부금은 기독교적 가치관의 기반 위에 양자 컴퓨팅 및 AI 등 초학제적 첨단융합 연구 자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연세대는 이번 기부를 통해 첨단 연구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초융합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학문 협력 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

또한, 양자컴퓨팅 기반의 산업 혁신 플랫폼을 마련해,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윤동섭 총장은 “이번 기부는 연세대가 학문적 도전을 지속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와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부자의 뜻을 깊이 새겨, 양자컴퓨팅·AI 등 첨단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과 기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발전 모델을 더욱 확장하고, 연세대가 기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교육·연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 서울신대, 2025년 1학기 외래신앙상담목회자·멘토그룹 오리엔테이션 개최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가 최근 백주년기념관 412호 국제회의실에서 ‘2025-1학기 외래신앙상담 목회자 및 멘토 그룹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덕형 총장과 교목처장 김성원 교수, 교목 10명, 외래신앙상담 목회자 및 멘토 등 3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교목처장 김성원 교수의 인도로 찬송가 497장 ‘주 넓은 사랑’을 부른 뒤, 정병수 목사의 기도와 함께 시작했다.

황덕형 총장은 신앙기존 외래신앙상담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예비신자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의 학업·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외래신앙상담 목회자·멘토를 모

셨다”며 “교직원과 학생들까지도 PRS성경읽기에 힘쓰고 있으니,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성욱 교수는 2024-2학기 교육상담 결과와 신입 외래신앙상담 목회자·멘토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한영희 교수는 상담 윤리에 대한 교육을 맡았으며, 박창균 교목은 2025-1학기 신앙동아리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김성원 교목처장의 인도로 합심 기도가 진행되어 학교와 예비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2024-2학기 교육 상담 결과에 따르면, 총 531명의 학생이 신앙상담을 받았고, 그 중 91%인 483명이 예비신자였으며, 나머지 9%인 48명은 신자였다. 상담을 받



서울신학대학교 2025-1학기 외래신앙상담 목회자 및 멘토그룹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기념 사진. ©서울신대

은 학생 중 46.4%는 교목에게, 53.7%는 외래신앙상담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았으며, 이는 전문적인 신앙상담과 지속적인 영적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했다.

장요한 기자



##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 김지연 대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필요성 강조

## 예장 통합 여전도회 ‘제47회 미래 지도자 세미나’에서

예장 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교육문화부 주관으로 열린 ‘제47회 미래 지도자 세미나’가 재강중부, 호남, 영남 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렸다. 대구제일교회에서 570여명이 참석한 영남 지역 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전도서 12장 13절)”는 말씀을 주제로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의 필요성과 가정과 교회에서의 교육법이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성경적 성 가치관 강사로 선 한국가족보전협회 김지연 대표는 성교육의 역사, 결혼·생애주기별 참사랑의 개념, 성교육의 흐름과 공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성경적인 성교육의 실상을 알리며 기독교 양육자의 효과적인 교육과 대처방법

등을 강연했다.

특히 비혼주의로 치닫고 있는 차세대에 게 알려줘야 할 결혼의 의미와 기능, 책무성을 강조하며 미디어 앞에서 지켜야 할 정결함과 차세대와 진리의 말씀을 소통하고 강론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다루었다. 또한 무엇보다 양육자들이 차세대를 방임하거나 그들과의 소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단 3분만이라도 성경적 세계관을 강론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동성애, 성전환, 낙태, 음란물, 결혼, 연애, 혼의 동기 등 세상의 가치와 성경적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해 온유하되 분명하게 성경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사례를 제시했다.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또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차세대에 게 회개의 길을 정확히 제시하여 회개를 받으시고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자책이나 일방적 금육주의 교육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닌, 회개와 성화의 장이 되어 하나님과 더욱 가까

워지는 교육이 되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전했다.

이날 현장에 참여했던 한 성도는 “김지연 대표의 강의를 듣기 위해 참여했다.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강연 중인 한국가족보전협회 김지연 대표 ©주최 측 제공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 손주와 내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지 명확해지고, 그 방법도 알게 되었으며, 좋은 사적과 프로그램도 안내 받아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은혜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

법들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당장 실천에 옮겨야겠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교육문화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돌아오는 3월 11일 사모다움선교회(대표 하귀선 사모) 주관으로 열리는 ‘제13회 사모데이 행사’에서도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이 주요 강연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지연 대표의 강의로 진행되는 본 행사에서는 불륜, 동성애, 성전환 등 성관련 목회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를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다뤄질 예정이다.

금번 사모데이가 열리는 곳은 성북중앙교회(담임목사 김부기)로, 전국의 600여명의 사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 오정호 목사, 악대본 대표회장 유임돼

### 제4회 정기총회 개최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이하 악대본)가 최근 대전광역시 소재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악대본은 기독교 정체성에 반하는 법률과 조례의 제정을 막아내고 이미 제정된 악한 법률과 조례를 폐기하는데 협력하고자 17개 광역사도의 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하여 2022년에 출범한 기관이다.

회의에 앞서 공동회장 박인용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박명룡 목사의 기도예에 이어 대표회장이며 새로남교회 당회장인 오정호 목사가 ‘네 후손이 복을 받게 하라’(산명기 4:37-40)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고문 심하보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뒤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정관에 따라 본부장회의가 결정한 신임원을 소개했다. 이날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 서기 박금배 목사, 회계 박상준 목사 및 정책기획위원장 김원평 장로가 유임됐다.

특히 금번 총회에서는 다수의 공동회장을 선임했는데 이기용 목사(신길성결교회), 신용백 목사(시냇가푸른나무교회), 임다윗 목사(충만한교회),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이성화 목사(부천서문교회),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박인용 목사(월드와이드교회), 박명룡 목사(경주 서문교회), 이수훈 목사(동일교회), 박재신 목사(양정교회), 이상복 목사(동명교회), 지태동 목사(광진중앙교회), 박진

석 목사(기쁨의교회), 권규훈 목사(변영로교회), 방수열 목사(현대교회), 문상무 목사(괴정중앙교회), 노정각 목사(온천교회), 김대훈 목사(조광교회) 등 18명의 공동회장이 악대본 사역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어진 3부 사역 나눔 시간에는 김원평 교수(한동대학교)의 ‘최근의 악법대응 이슈’ 설명에 이어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가 ‘나쁜 악법의 정체와 문제점’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광희 사무총장은 올해 중점 사역으로 전국 지역별로 ‘동성애대책아카데미’를 열어 일반 성도들이 악법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하며 협력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17개 광역시도에서 모여온 45명의 임원들이 지역별로 임원 소개 및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며 올해도 악법과 나쁜 조례를 막는 일에 전력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악대본은 “악대본은 작년 9월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정을 추진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안에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내용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며 소수자 보호 같은 독소조항이 있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막는 일에 적극 힘쓰고 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악대본

## 몽지협, 몽골에 ‘복합 체육시설 건립’ 추진한다

### 울란바트르시 바양주르흐구청과 계약 체결

### 국제 규격 에어돔 축구장 갖춘 복합 체육시설

### “민관 합작 사업 첫 사례”

한국-몽골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온 몽골한국경제지원협의회(회장 김동근, 이하 몽지협)가 지난달 말 몽골 울란바트르시 바양주르흐구청과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약식’을 가졌다.

바양주르흐구청에서 이뤄진 계약식 체결은 자르갈 사이항 바양주르흐구청장 및 각 부서 의원들과 몽지협 김동근 회장, 최도권 법률고문(선진그룹 회장), 손해미 이사, 유미정 이사, 에트거 프로젝트 매니저, 미가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몽골 울란바트르시 바양주르흐구 톨갈 일원에 국제규격의 에어돔 축구장을 비롯해 여러 스포츠 시설과 부대시설, 캠프장, 녹지시설 등을 조성한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몽지협은 그 동안 해당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 바양주르흐구와 협의하며 구청장, 각 정부 부서별 대표, 각 동별 대표, 시의회, 구의회, 군경찰, 시민대표 등 여러 관계자들과 4차에 걸친 공청회를 거쳤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해 온 이 프로젝트는 의회 의장의 진행 아래 전원 거수 찬성으로 최종 통과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바양주르흐구 자르갈사이항 구

청장은 “이 프로젝트는 바양주르흐구의 얼굴이다. 한국인인 몽지협 회장님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몽지협 김동근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며 “몽골 어린이들이 활기차고 힘차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바란다. 몽골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몽지협 최도권 법률고문(선진그룹 회장)은 “몽골 국민들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우수한 시설이 건립될 것이다. 여러 절차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몽골은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긴 기후 특성상, 야외 스포츠 활동의 제약과 종목의 한계 등으로 스포츠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몽지협 김동근 회장은, 몽골에서 FIFA와 AFC에 등록된 MFF(몽골축구협회) 프리미어 리그 소속 한티스FC의 구단주로서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한티스 유소년 축구교실을 통해 차세대 인재 육성에도 힘써오면서 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성을 제하고 계약 체결을 더욱 추



몽지협 김동근 회장(오른쪽)과 바양주르흐구 자르갈사이항 구청장이 계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몽지협

진하게 되었다고.

몽지협에 따르면 에어돔을 적용한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의 건립은 사계절 활용가능해 각종 스포츠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설을 조성해 여가활동을 위한 다목적 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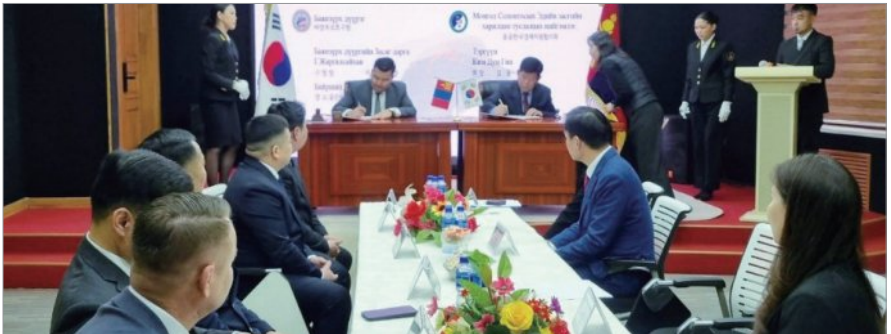
최근 몽골은 토지 배분 불가에 관한 국회법이 개정된 상황이지만, 이번 사업은 문화, 스포츠 분야 정부-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부지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몽지협은 설명했다.

몽지협은 “바양주르흐구는 2025년을 정부-민간 책임과 협력의 해로 선언한 바, 본 계약식이 민관 합작사업의 첫 사례가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며, 2012년 이후 지지부진한 한몽 관계성 회복의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몽골 정부는 이번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약식’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선수 육성 및 몽골 스포츠 발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공청회와 계약 체결 소식은 관공서와 개인 SNS 등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어 몽골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몽지협은 전했다.

김진영 기자



몽지협-바양주르흐구청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몽지협



## 대표님!

##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 회사의 성장동력에 날개를 다십시오

성장은 언제나 혁신으로부터, 기업 최적화 생성형 AI가 업무 방식을 혁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 편리한 오피스 기능 | 강력한 검색 기능 | 믿을 수 있는 보안 | 실시간 자막, 회의록 작성 등 편리한 회의 지원 | SEAMLESS하고 쉬운 사용성

## SAMSUNG SDS



#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기본 중시해야”

‘남가주 평신도를 위한 이단 세미나’ 나성영락교회서 개최

남가주 평신도를 위한 이단 세미나가 미주복음 방송, 미주바이블백신센터, 남가주동신교회, 나성영락교회 공동 주최로 28일 오전 10시에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첫번째 강사로 나선 에스라 김 목사(미주바이블백신 센터장)는 미주 내 이단 활동에 대한 현황과 대처 방안을 나누면서, 신천지가 주로 포교를 위해서 지역 행사 주최를 통해 단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신천지는 데이트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온오프라인에서 친분을 쌓고 그룹 바이블스터디를 이끌고 있다. 그렇게 미주 2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포교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예장합동 이단 상담소장인 신현욱 목사는 ‘미주 내 이단 단체 현황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신 목사는 자신이 20년간 신천지에서 몸담고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성도들에게 나눴다.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교리와 포교 전략을 상세히 설명했다.

신현욱 목사는 강의에서 자신이 20년 동안 신천지에 몸담으며 이만한 교주의 폭주각사가 되어 이단의 괴수 노릇을 했던 과거를 말했다. 그러나

2006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를 탈퇴한 후, 그는 지난 18년간 미혹에 빠진 영혼들을 구출하고 인도하는 사역을 해왔다. 그는 이 경험을 나누며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단이 어떻게 교회를 미혹하고 신도들을 유혹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단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대상은 이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단에 대해 잘 알면 주의할 수 있지만, 잘 모르면 경계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단들은 우리의 잘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 대해 “신천지식 포교 방법은 매우 독특하고 효과적이다. 그들의 주요 특징으로 거짓말과 연기를 잘 한다”며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인간관계를 쌓은 뒤에 성경 공부를 제안한다. 그들은 전도 중에 거짓말을 잘하고, 감동적인 간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들의 목적은 성경공부를 의심하지 않도록 만든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가라고



신현욱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속으로 경계심을 가지면 미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천지가 “사기를 치는 종교 집단이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가 미주 지역에서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2019년과 코로나 기간 동안 신천지는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 성장했고, 그 이후로 해외로 눈을 돌려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지역에서는 특히 2세대들이 신천지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미주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 중 90-95%가 2세대들인데, 교회에서 철저히 경계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라 김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신 목사는 “2세대들은 신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며,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이단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는 것이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방심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이단에 대해 잘 알고 경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다.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마귀 엘레야에 세계 이단의 본부 성격의 비중을 둔 단체들이 많이 모여있다. 이만한 교주가 엘

에야에 60억을 지원해 예배당을 현금으로 매수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곳이 엘레야”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이단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신천지’다. 이들의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유행하는 때”라며 “그때 그때 이단에 주의하고 경계하고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도 네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들이 ‘안식일’, ‘유월절’, ‘성탄절’, ‘어머니 하나님’ 등의 단어로 접근해 오면 절대 이들을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 대답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면 미혹되는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신 목사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며, 교회와 목회자에게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 공부를 몰래 하지 말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 신앙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된다”며 “신앙생활을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 이단의 미혹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신뢰를 가지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이단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 광신대 김경윤 총장 “교회가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한마음제자교회서 설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교회는 성장”

광신대학교 총장 김경윤 목사가 지난달 23일 한마음제자교회(담임 박복환 목사)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 설교했다.

김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본문으로 삼아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며 “교회 안에서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땀이 하나이며, 주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믿음은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숙해지는 것”이라며,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고 했다. 그는 한 성도의 간증을 소개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성



광신대 김경윤 총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됐다”며, “우리도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자가 받은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교를 통해 한마음제자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복환 목사는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셉 리 기자

## 웹사이트 구축 교육 및 무료 웹호스팅 신청

매주 화 저녁 7시 글로벌 비전교회

교회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강좌가 개설되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글로벌 비전교회에서 진행된다.

이 강의는 교회 웹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과 전략을 배우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웹사이트 구축 실습 ▶효과적인 콘텐츠 업로드 ▶검색 엔진 최적화 활용 ▶교회 웹사이트 유지와 보안 ▶디지털사역과 연계 ▶교인과의 소통을 위한 이메일 뉴스레터 등

활용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강좌는 8주간 진행되며, 등록금은 \$200이며 연장 교육이 가능하다.

이 강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직접 교회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돕는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시는 이들에 한해서 2025년도 홈페이지 호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기간: 2월부터 선착순 강의 장소: 7342 Orangethorpe Ave, B-115, Buena Park, CA 90621 웹사이트: <https://globalvision.university> (강의 사이트) 김민선 기자

## 포모나 언약교회, 호성기 목사 초청 부흥회

3월 7일부터 9일까지

포모나 언약교회(담임 장수영 목사)가 3월 7일부터 9일까지 세계전문인선교회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를 초청해 춘계 부흥회를 연다. 7일 저녁 7시, 8일 오전 6시와 오후 5시,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호성기 목사는 필라델피아교회를 설립, 30년 간 목회했으며, KPCA 해외한인장로회 제38대 총회

장을 역임했다.

언약교회는 2023년 12월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2024년 1월 독립교회로 출발했으며, 지난 5월 19일에 설립예배 및 장수영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주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김민선 기자



#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탈라해상풍력 전경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 오엠 선교선 ‘둘로스호프’ 3월 중순 한국 최초 방문

3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울산-여수-인천-부산서 사역

오엠국제선교회(OM)의 선교선 ‘둘로스호프(Doulos Hope)’가 3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한국을 최초로 방문하여 사역한다.

‘둘로스호프’는 국제OM이 동아시아 지역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해 2022년 홍콩의 카지노선을 매입하여 개조, 2023년 5월부터 운항하고 있는 선교선으로,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29년간 운항하고 2009년 은퇴한 ‘둘로스호’(둘로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종’)를 기리며 이름을 지었으며, 길이 82m, 폭 16m, 무게 3,370톤 규모의 배에 30여 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선교사가 승선하여 사역하고 있다.

현재 대만 지붕에 머물고 있는 둘로스호프는 3월 14일 울산항에 입항하여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울산, 4월 2일부터 22일까지 여수,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인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부산에서 사역하고 6월 9일 출항할 예정이다.

한국OM은 이번 둘로스호프 방문을 맞아 단기 프로그램인 STEP을 운영한다. 선교선의 한 부서



선교선 둘로스호프가 대만을 거쳐 3월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OM

에 속해 정해진 사역을 주 5일간 감당하면서, 지역 선교사역 및 타문화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울산항, 여수항, 인천항, 부산항과 한국 OM 본부에서 통역 봉사, 일반 봉사 등으로 섬길 둘로스호프 자원봉사도 모집 중이다.

한편, 국제OM은 1970년 로고스호를 구입하며 선교선 사역을 시작했으며, 현재 둘로스호프와 로고스호 두 척을 운영하고 있다. 1950년 조지 버워 선교사가 미국에 OM본부를 세웠으나, 중동 국가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선교선 본부는 독일

모스바흐에 두었다. 국제OM의 선교선은 지금까지 150개국 이상, 1,600개가 넘는 항구를 방문하며 5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방문하는 항구에서 지식과 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을 통해 희망을 공유해 왔다. 또 둘로스호프 크기의 4배에 달하는 로고스호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상 사절을 보유하여 5,000여 중, 50만 권 이상을 사역을 갖췄다. 두 선교선에는 60여 개국에서 온 선원단과 자원봉사자, 선교사들이 배에서 생활하며 사역 중이다.(www.om.org) 이지희 기자

# 블레싱대한민국 페스티벌, 3월 7일 개최

오후 8~10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

대한민국 복음화 캠페인인 ‘블레싱대한민국’의 사역 성과에 감사하고 ‘블레싱USA’ 캠페인의 시작을 위한 ‘블레싱대한민국 페스티벌’이 오는 3월 7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블레싱대한민국 캠페인은 비기독교인을 위한 온라인 전도플랫폼인 ‘들어볼까’를 통해 크리스천 50만 명이 ‘복음명함’ 100장을 5천만 국민에 전하는 초교파 전도운동으로,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됐다. 대한민국 30여 개 지역, 약 6천여 개 교회와 단체가 함께했으며, 3월 4일 기준 3만 5,942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5천 개 미자립교회의 성도 총 5만 명(교회당 10명)에게 복음명함을 1명당 200매씩 무상지원하고, 1만 교회의 외벽 현수막 디자인과 파일을 무상 지원하고, 블레싱대한민국 릴레이 위شم을 개최하는 사역을 펼쳤다.

블레싱USA 캠페인의 경우 한국에서의 캠페인과 발맞춰 200만 재미동포와 함께 K-복음 콘텐츠로 미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 중이다.

블레싱대한민국과 블레싱USA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 세계선교협의회(KWMA)와 복음의전함 등이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아나운서 김재원, 가수 김신의, 김조한, 뮤지광, 박지현, 범키, 이마셀, 배우 신현준, 윤유선, 전수진, 뮤지컬 배우 선우, 주아, 개그우먼 권진영, 김혜선, 이성미, 아역배우 최소율 등 ‘들어볼까’에 재능기부로 출연한 여러 셀럽의 찬양과 간증이 이어질 예정이다. 찬양팀으로는 제이머스가 삼기교, 캠페인 추진위원 교회로 참여한 한국과 미국의 총 70여 교회 담임목회자와 유관 단체장 등이 함께하는 블레싱찬양단 등도 순서를 맡았다.

한편, ‘들어볼까’는 예수님과 기독교를 올바르게 소개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인 2021년 12월 개설됐으며, 셀럽의 간증, 목회자의 쉬운 교리 설명 등 130여 개의 동영상 콘텐츠, 밈과 출석할 수 있는 교회 정보 등을 소개한다. 이지희 기자



## 성경을 선교적 시각으로 보기(20) ‘이방 세계에 빛이 되자’

사사기 42장 1-7절



김영휘 목사/선교사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와 종으로서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한다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첫 번째 그 역할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냄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백성으로 온 세계에 나타냄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 그동안 상고했다.

계속하여 이번에는 ‘여호와와 종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 번째 역할로 ‘이방 세계에 빛’을 비춤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방의 빛’이라는 용어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 42장 6절과 이사야 49장 6절에서만 두 번 나오는 말로, 구약에 나타난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용어이다.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을 향해 빛의 사명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말한 바 있다. 바울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동일한 명령을 주셨던 것이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그의 품에 안고 예수를 가리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니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빛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상교회를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502장의 가사와 같이,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선교의 범위를 ‘땅끝까지’로 삼는 것을 뜻한다. 빛은 모든 어둠의 구석구석까지도 다 비추듯이 복음의 빛은 세계 땅끝 어디든지 비추어야 한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43%가 복음을 모르고 사는 미전도 종족이다. 그 가운데서 거의 260만

명의 이주민들이 지금 여러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하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은 신약시대에서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서도 이미 강조한 것을 본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3-4절에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

참 빛 예수의 영 충만해야 사명 감당할 힘 얻어  
날마다 겸손과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가야

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여하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사냥가의 벼들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나의 영’이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일찍이 스가라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

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속 46)고 말하였다.

셋째로 ‘빛’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광합성 작용에 꼭 필요하다. 빛은 공기와 물과 합성돼 생체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 모든 동식물을 자라게 한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다.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에너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겸손과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가자. 그리함으로 ‘이방의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한다.

결론적으로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은 ‘여호와와 종에게 부여된 매우 귀한 사명이다. 이같이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방의 빛’으로서 최초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지만,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졌고,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지상 교회에게도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갖고 가야 하며,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 세계를 비추는 ‘빛의 사자’가 되어 명실공히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게 되기를 소원한다.

【말씀묵상기도】

1.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방의 빛’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2. 미전도 종족으로서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빛의 사자’가 되는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3. ‘이방의 빛’의 사명을 위해서 인간의 힘과 돈과 권세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간구하게 하소서.

◆김영휘 목사/선교사  
KWMA 운영이사  
시나이어선교한국 실행위원  
서울남교회 은퇴목사

#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더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 Global No.1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미국인 62% 기독교인… 지난 20년간 종교 정체성에 변화”

## 퓨리서치 센터 설문조사

미국 퓨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소속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미국에서 지배적인 신앙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실시된 3만7천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인의 62%가 여전히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7년의 78%에서 감소한 수치이지만, 하락 추세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종교적 정체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모든 주요 개신교 분파의 숫자가 감소한 반면, 가톨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현재 인구의 19%를 차지했다.

복음주의 개신교도는 26%에서 약간 감소한 23%를 차지하고, 전통 개신교도는 2007년 18%에서 현재 11%를 차지했다. 흑인 개신교 교회도 약간 감소해 현재 인구의 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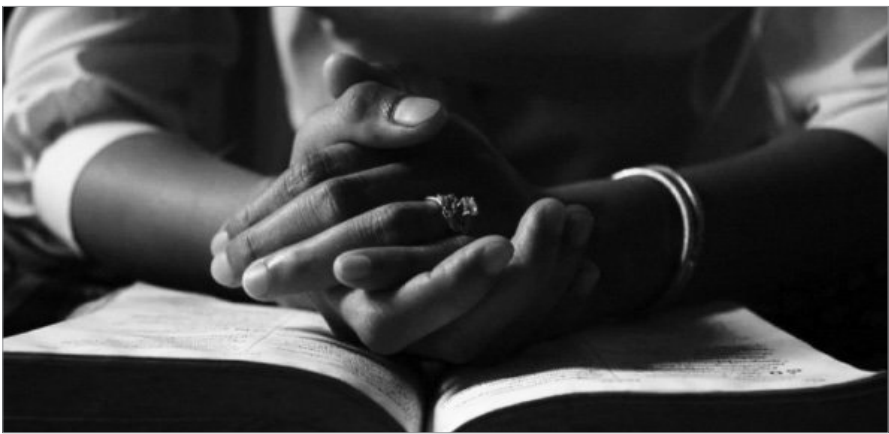
동시에, 미국인의 약 30%가 자신을 무종교인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정 종교적 정체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세대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비종교적 가정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종교적 정체성이 세대를 거쳐 약화되면

서 신앙 전통 안에서 양육된 사람들 중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전통에 헌신하는 사람은 감소했다.

한편, 정치적 소속도 종교적 정체성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그 숫자는 3분의 1로 줄었다. 보수층 사이에서 감소는 훨씬 덜 두드러지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공공 생활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정치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여전히 미국 이민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민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기독교인으로 확인되며 이는 전체 인구



©pixabay

와 거의 비슷하지만, 비기독교에 속하는 미국인의 수는 약 7%로 증가했다. 이 연구는 또한 신앙 공동체 내 젠더

역학의 변화를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종교적이었으며,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도 더 많이 참여했다. 이

는 여전히 사실이지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젠더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2007년 매일 기도하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의 비율을 17포인트나 초과했다. 오늘날 그 차이는 13포인트로 줄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예배 장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종교 공동체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에서 기독교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미국 생활에서 주요한 세력으로 남아 있다. 종교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태도가 변화하면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새로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경 기자

## 몰도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성직자들의 연대 호소

몰도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입장을 표명하라고 성직자들에게 촉구하며, 5백여곳의 예배 장소가 파괴되고 인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전쟁에 대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 다니엘 보다는 “모스크바가 여전히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정신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보다 대변인은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5백곳이 넘는 교회, 유대교 회당, 모스크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 이틀에 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침묵하지 말라. 세상에 진실을 말하라. 침략은 영토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성지의 파괴”라고 했다.

이같은 호소는 전국 교회 신도의 90%를 차지하는 몰도바 정교회가 러시아와 루마니아의 권위에 속하는 교회 내 경쟁 분파들 간 충성심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모

스크바와 연계된 몰도바 대교구에서 많은 교구가 이주해 루마니아와 연계된 규모가 작은 베사라비아 대교구에 속하게 되었다.

모스크바와 연결된 몰도바 블라디미르 대주교는 공식적으로 첫날부터 침략을 비난하고 9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지원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블라디미르 대주교는 2023년 인터뷰에서 “모든 예배에서 교회를 위해 자비를 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기도하는 특별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도에서 그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주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관련된 교회의 분당에 속한 사제들은 침략을 뒷받침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언론 보도가 여러 건 있었다. 교회 측은 사제 그룹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러시아 성지로 순례를 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인구 250만 명인 몰도바는 우크라이

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60개 이상의 교구가 러시아 정교회에서 루마니아로 소속을 옮겼다.

러시아 정교회 내부에서도 전쟁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모스크바 총대주교 키릴은 침공을 지지하고 러시아 정부와 교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전쟁이 시작된 후 ‘용서의 날’이 담긴 낙원에서 추방된 것을 기념하는 교회 축제에 설교를 통해 서방의 동성애자 권리 지지를 공격했다.

리버풀 호프 대학교 신학 수석 강사이자 우크라이나 비잔틴 전례 가톨릭교회 회원인 타라스 코마치 목사는 2022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키릴은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지만 두려워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을 지키기를 거부했고, 총대주교의 설교 직후에도 3백여명의 사제들이 평화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이미경 기자

## IAEA “北 영변 5MW 원자로 작년 10월 재가동 징후”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작년 가을부터 재가동된 징후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3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이 약 60일의 중단을 거쳐 2024년 중순부터 재개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뤄진 60일의 가동 중단 기간 원자로 연료 공급 및 재가동 준비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로시 총장은 “방사화학 실험실에 공급할 증기 시설 가동을 포함해 새로운 재처리 작업 징후가 포착됐다”라고

했다.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핵물질 생산기지는 영변으로 추정했다.

그로시 총장은 “사전에 보이는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와 인프라가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원심분리기 시설 및 구조와 일치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공개된 강선 시설을 거론, “강선과 영변의 비공개 농축 시설과 김 위원장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계획 초고 수행 촉구는 모두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다만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로시 총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확하게 위반한다”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세이프가드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는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향상된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난영 기자

## 에스토니아, 유럽권에서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기록

2월 인플레이션율 5% 도달.. 유로존 최고 비율  
다른 유럽 국가들은 2월 2.4%..전월 보다 줄어

북유럽 발트 3국의 하나인 에스토니아의 인플레이션율이 2월에 5%에 도달해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다고 유럽연합통계청 연감인 유로스타트가 발표했다.

3일 발간된 유로스타트 최신호의 사전 통계 발표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통계청은 이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전력시장의 가격 인상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발트해 연안 3국이 오랜 노력 끝에 올 해 2월 8일 러시아 전력망과의 완전한 분리를 실현했다.

에스토니아 통계청의 긴급 발표 수치에 따르면 물가인상이 극심한 가운데 가격이 내린 것은 의류와 신발류 밖에 없다고 한다.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월들어 2.4%로 감소해 1월의

2.5%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4분기의 에스토니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연대비 1.2% 상승해서 106억유로(111억 달러, 16조 2,282억 원)에 이르렀다고 에스토니아 통계청은 밝혔다.

지난 해 4분기에는 10개 분기에 걸쳐 계속되었던 경기 침체가 끝나고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GDP가 상승했다고 통령계청의 로베르트 무이르세프 국내통계국장은 말했다. 하지만 지난 해 에스토니아의 1년 전체의 GDP는 전년보다 0.3% 줄어든 395억 유로( 415달러, 60조 6,730억 원)에 그쳤다. 차미례 기자

## 트럼프 “TSMC, 미국에 1000억달러 투자 계획”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가 미국에 1000억달러 규모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바로 이곳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반도체 공장 확대 등 향후 4년간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윤희 기자





**DOOSAN**

소형 건설물류장비의 세계적인 이름 밥캣은 두산의 브랜드입니다

**WE ARE  
DOOSAN**



**Bobcat**



# 트럼프, 젤렌스키 강력 비판… 미국·우크라 갈등 격화

“전쟁 종식 의지 없다” 비난… 젤렌스키는 “미국과 관계 회복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며, “이것은 젤렌스키가 한 발언 중 최악이며,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사람(젤렌스키)은 미국이 지원하는 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유럽 지도자들은 젤렌스키와의 회의에서 미국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힘의 과시 측면에서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광물 협정 서명도 무산됐다. **◆젤렌스키 “미국과 관계 회복 기대”** 젤렌스키 대통령은 런던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 참석 후,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광물 협정 체결에 합의했고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국도 여전히 준비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 정상회의 참석 전 우크라이나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날 시점은 아직 멀었다”며 전쟁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냉담한 태도… 젤렌스키 신뢰도 하락**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다. 그는 “당신에게는 (내밀) 카드가 없다(You don't have the cards)”며,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입장이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해왔던 지난 30여 년간의 외교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이 되었으나,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간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시도



28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

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좌절됐다.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적극 지지했으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

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다시 나토 가입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협상을 우선시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백악관 회담에서 격렬한 설전… 트럼**

프 “고마운 줄 알아라”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대립이 격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과 동석한 자리에서 “푸틴은 지금까지 25번이나 자신의 약속을 어겼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를 논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고마운 줄이나 알아라. 당신에게는 협상 카드가 없다”고 면박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는 지난 30년간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점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인식을 보여며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홍은혜 기자**

## 헌법 84조 논란 재점화… 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불소추 특권 쟁점 부각

대선주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주장… 여야 공방 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26일로 확정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다수설을 강조하며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도 이에 힘을 실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불소추 특권에서 말하는 ‘소추’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재판수행(공소유지)’까지 포함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도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경우 대통령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 이는 헌법상 탄핵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검찰 등 사법기관이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후보자의 형사재판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출한 경우, 그 결단이 사법기관의 판단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기소된 사건은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해 6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논란을 처음 제기하면서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 한 전 대표는 당시 “거대 야당이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초헌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 84조 논쟁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뉴스시스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을 거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는데, 홍 후보 측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반박했다.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 과거와 정반대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모두 3월에 예정되어 있어,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 84조 논란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용국 기자**

##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년단체, 헌재 앞 무제한 기자회견 돌입

국민변호인단, 탄핵 절차 비판하며 청년 필리버스터 진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단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하 국민변호인단)이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현재의 심판 절차를 비판하고 탄핵 반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국민변호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필리버스터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장인 배의철 변호사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이 왜 기각돼야 하는지를 현재 재판관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2030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하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의 발언 이후 ▲김세비(연세대 대학원 재학생) ▲박강희(건국대 졸업생) ▲이한나(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교육국장) 등 청년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낮 12시부터는 연세대 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연세대 학생 약 10여 명이 참석했다.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박준영(연세대 전자전기공학부 재학생)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선관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부정 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들은 현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2030 청년 모임을 시작으로 ▲낮 12시 연세대 ▲오후 1시 탄대청(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 모임) ▲오후 2시 서울대 시국선언 ▲오후 3시 고려대 ▲오후 4시 전국 유학생 연합 ▲오후 5시 형사법 연구모임 ▲오후 6시 자유시민청년단 순서로 진행됐다. **박용국 기자**

걱정은 나누고  
위기는 함께하는 자조금~!

# 자조금

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한국자조회

(사)한국인삼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사)한국딸개감협회

(사)한국파파인협회

(사)한국마늘연합회

(사)한국포도협회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사)한국난재배자협회

(사)대한두채협회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사)한국키위연합회

(사)한국배연합회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사)한국사과연합회

(사)제주감귤연합회

##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 현황

2015년 인삼을 시작으로 현재 **총 18개 품목**의 의무자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 가격안정**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교육**

**농업소득 안정에 기여**

### 자조금, 이런 일을 합니다

자율적 수급조절	경작 및 출하신고, 품질과 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지원
소비 홍보	품목에 대한 소비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캠페인, 판촉행사, 언론홍보 등
품질 개선 등 조사 연구	품목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창구 단일화 등 유통구조 개선 유도,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 추진
교육 및 정보 제공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교육과 품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국고 매칭 지원







# 비가 많이 내린 새벽 두시, 교회의 기억... 교회란 무엇인가

##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광야를 선택한 주님교회

40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십사일반 모은 헌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떠날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eclesia) 즉, '세상 가운데서 부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지난해 5월 UMC교단 총회에서의 결정, 즉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 허용 및 동성애자 결혼식 주례를 허용한 교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전통적인 신앙의 입장을 굽히는 대신,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건물 대신 '신앙'을 가진 주님교회(담임 최현규 목사)의 사례는 진지하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목상의 질문을 던져주며, 교단과의 신학 및 신앙적 불일치로 고민하는 교회들에게 시사점을 준다.

지난 1월 말, 주님교회 최현규 목사가 TV기독교일보 '늘 새롭게'에 출연해 교단을 탈퇴하게 된 과정, 교회 건물을 두고 마땅한 예배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

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얼마 전까지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섬겼다. 연합감리교회는 감독의 파송제로, 저희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지정하는 교회로 간다. 2022년 7월부터 남가주 주님의교회로 파송되어 사역했다. 그때 연합 감리교회 이슈 중 하나가 동성애 목사 안수를 합법화시키는 이슈가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 총회를 통해 대략 95.6%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그 동성애 목사 안수가 허용되면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2024년 5월 말, 교단에서 제일 큰 총회를 통해 그것이 통과되었다. 반대하는 교회에는 제재가 들어갔고, UMC는 저를 5월 말에 다른 미국 교회로 파송하기로 했고, 열을 정도 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교인들과 제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교인들은 흩어질 것이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답은 한 가지였다. '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하고 성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



주님교회 담임 최현규 목사 ©TV기독교일보

교단을 탈퇴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6월 15일 성도들 앞에서 UMC 탈퇴 결단을 선언했다. 탈퇴 선언 후 예배드리기 위해 30군데를 알아보았지만, 한 곳에서도 '예스'라는 답을 얻지 못했다. 6월 13일 예배를 앞두고, 예배 처소를 찾지 못한 주님교회는, 33도~35도 되는 더운 날씨에 야외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다.



주님교회는 연합감리교(UMC)의 친동성애 정책에 반대하며, 교단을 탈퇴한 후, 여러 곳에 주일예배 드릴 장소를 문의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주일예배를 3일 앞둔 목요일 SONORA 하이스쿨로부터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6월 23일 첫 주일예배를 드렸다. ©교회 측 제공

주일을 3일 앞둔 목요일, 라라브라에 위치한 SONORA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온 성도가 울었다. 그렇게 온 성도가 나와서 첫 예배를 작년 6월 23일에 드리고 지금까지 주님교회는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다.

최현규 목사의 결단은, 그의 마음 속

에 남아있는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아버지도 목회자셨는데 목회가 쉽지 않음을 목도하고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 겠다 생각했다. 아버지가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번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 새벽 2시에 교회에 가서 물을 펴야 한다며 저와 가족들을

깨우쳤다. 비를 뚫고 교회에 갔는데 이미 성도들이 열심히 물을 펴고 계산 모습이 어린 제게도 감동이 됐다. 목회에 대해, 어렵고 힘든 것만 기억했는데, '아니구나, 저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다."

그는, 이전 보다 환경이 좋지 않지만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다며, 모임을 갖기 쉽지 않음에도,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다 보니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커피브레이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트리프레스다아스(Tres Dias)도 은혜 가운데 마쳤고, 성경필사에도 150명이 참여하는 등 영적인 훈련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 '내 것'처럼 여겼지만, 이 과정을 겪으며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최 목사는, '정말 주님이 주신 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처치'라고 이름을 지었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교회홈페이지 : www.joonim.org  
주일 예배 :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토마스 맨, 주디 한 기자

## 미국 내 기독교 감소세 멈춰... 퓨리서치, 종교 지형 조사 발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턴내셔널(CDI)은 미국 내 기독교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최신 종교 지형 조사(Religious Landscape Study, RLS)에 따르면, 미국에서 기독교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미국 성인 36,90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이번 조사를 "미국 내 종교적 정체성과 신앙 실천에 대한 최대 규모의 연구"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내 기독교인의 비율은 60%에서 64% 사이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기독교인의 비율은 62%이며,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증가세도 멈춘 것으로 분석됐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수석 작가인 애런 엘스(Aaron Earls)는 "이전까지 진행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미국 기독교인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 기독교일보 DB

된 미국 종교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기독교 감소 추세가 2000년대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연구를 포함한 최신 조사 결과들은 이러한 감소세가 최소한 둔화되었거나 완전히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9년 이후 기독교인의 비율은 60%에서 64%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퓨리서치가 2007년과 2014년에 각각 실시한 종교 지형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당시 미국인의 78%가 기독교인이라

고 응답했으며, 2014년에는 이 비율이 71%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가 멈추면서 현재 62%를 기록하고 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이른바 '논즈(nones)'의 증가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엘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논즈의 비율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미국인의 약 30%가 자신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혹은 특정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세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다른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며 "이러한 새로운 종교 환경 속에서 교회가 주변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에서 개신교인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51%에서 감소한 수치다. 가톨릭 신자의 비율은 2007년 24%에서 현재 19%로 줄었다. 하지만 개신교의 감소세는 2019년부터, 가톨릭의 감소세는 2014년부터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엘스는 개신교 내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음주의 개신교(Evangelical Protestant) 신자의 비율은 2007년 26%에서 현재 23%로 3%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역사적으로 흑인 교회에 속하는 개신교 신자는 같은 기간 7%에서 5%로 줄었다"며 "그러나 주류 개신교(mainline Protestant)는 2007년 18%에서 현재 11%로 급감했다. 이는 개신교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이 주류 개신교의 감소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퓨리서치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감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다른 지표들을 보면 향후 몇 년 안에 미국 내 종교 지형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덜 종교적이라는 점이 주요 변수"라며 세대 간 종교 신앙의 차이가 향후 기독교 인구의 변화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연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상동교회 방문... 통일 및 탈북민 지원 논의

### 독립운동 유산 계승하며 통일 의지 강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 서울 상동교회를 방문해 이성조 목사와 만나 통일 문제와 탈북민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번 예방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31절을 앞두고 진행됐다.

상동교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와 상동청년회가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역사적 장소다. 김 장관은 "31운동의 정신은 완전한 통일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통일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탈북민이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성조 상동교회 목사를 예방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과 이성조 상동교회 목사가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또한, 그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탈북민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설명하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북한 이탈주민법 개정(4월 23일 시행 예정) ▲탈북민 고용 기업 세제 혜택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2월 28일 시행 예정)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제한 해임면도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할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중소기업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국가)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자신이 늘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나이가 들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이 늘 옳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납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생각이 늘 옳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과거의 배움과 경험과 만남과 성공과 성취와 실수와 실패를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까닭에 전지(全知)하지 않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겸손한 성품 중의 하나는 자적인 겸손

입니다. 자적인 겸손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으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은 모르는 게 없다는 뒤통에 걸리면 큰일입니다. 그것을 지능의 뒤통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정말 똑똑한 사람같이 보이는 데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지능의 뒤통에 걸린 까닭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적인 겸손이 필요할까요?

첫째, 지적 겸손을 통해 과신(過信, Overconfidence)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신이란 자신의 지식, 능력, 판단이 실제보다 더 정확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심리적 오류를 의미합니다. 과신이란 단어 속에는 “자나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왜 사람이 과신의 뒤통에 걸려들까요? 과거의 성공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

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많은 지식을 폐기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정보와 기술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전의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의 성공에 도취되어 같은 생각과 같은 방법과 같은 전략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지속적인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둘째, 지적 겸손은 지적 유연성을 낳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필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적응력입니다. 유연성은 변화에 잘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지적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도구를 환영합니다. 기존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더 나은 생각을 환영합니다.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입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경직(硬直)입니다. 경직(硬直)이란 돌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직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무엇이든 경직되고 딱딱한 것은 위험합니다. 딱딱하면 부서집니다. 유연해야 부서지지 않고 흐름을 잘 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연함이란 불확실한 현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흐름을 분별하고, 그 흐름을 잘 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변화는 생존을 위해 필수입니다. 또한 변화에 유연하

게 대처할 때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적 겸손은 협업의 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스승을 무시합니다. 집단 지능(Collective Intelligence)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더불어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통합과 융합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반대 의견 속에서도 배움을 얻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장 최상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넷째, 지적 겸손은 평생 학습의 길입니다. 지혜는 평생 학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정보를 분별한 후에, 좋은 정보를 선택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아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임합니다. 또한 겸손한 배움

과 경험의 축적의 열매입니다. 평생 학습이 지혜의 같은 까닭은 우리가 배운 지식이 영원히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약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지식과 정보에 매달려 있으면 시대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자세는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라는 태도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는 자세입니다. 모든 사건과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도 이기려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 대화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세로 소통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적 겸손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 AI: Prologue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성경이 증거하는 종말, 마지막 때(End Time)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귀를 솔깃하게 하지만, 이제는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그 가운데 현실적인 이유 중 한가지는 갈수록 삶이 바빠져 분주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이 풍성해졌는데, 여유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풍요 속 빈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를 믿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입니다.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던 소년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거짓말을 일삼다, 실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 거짓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종말론을 그저 음모론 혹은 호기심거리로 비취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건전하고 올바른 성경적 개념을 정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믿는 자로 하여금 깨어 있는 산 믿음, 즉

믿음의 신선도(Freshness)를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언제 인지 자신은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시에 깨어 있으라, “때가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기쁨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때가 갑자기 도래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사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신 것처럼, 종말에 대한 수많은 거짓 정보와 오해와 폐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purity)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켜내야 할 것은 목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크리스천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AI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단순히 큰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을 알

기 때문입니다. AI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의 법과 제도 윤리 심지어 종교와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거의 사람의 판단과 동작과 흡사한 AI로봇이 개발되어,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 되면, 직장, 작업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AI를 연구하는 직업과 AI를 만들고 고치는 산업, AI 기술로 다치고 병든 사람의 육체적 기능을 보완하는 의료공학분야 외에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아가 수 있는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고, 일하지 못해 먹고 살기 어려운 디스토피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이 생산 수단을 국가나 공동체가 관리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를 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AI가 올 변화라는 거대한 빛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본서가 AI의 정체를 밝힌다거나, “AI의 무서움을 알고 경계하자”, “AI는 종말의 징조다”라는 종말론적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AI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함과 동시에 성경 말씀이 곧 진리이며, 믿는 자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도(啓導: enlightenment)케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 생명을 택하라

김희보 은퇴 목사

예장 통합 용천노회



[말씀과 명상(42)]

신들의 죽음: 메레즈코프스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랑과 복과 저주를 애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명기 30:19)

택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상황에서 주어 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이미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 응답하도록 그들을 초청하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삶을 향해 “기대아” 살아감으로 이미 주어진 생명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초청받은 것이다.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 황제 ‘배교자’(背敎者) 율리아누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을

그린 작품이, 메레즈코프스키(Dmitry Sergeevich Merezhkovsky, 1865-1941)의 소설 〈신(神)들의 죽음〉(Smertibogov, 1896)이다.

“말라노 칙령(勅令)으로 기독교를 공인(公認)한 콘스탄티누스 대제(大帝)는 율리아누스의 사촌 형이었다. 왕권(王權) 다툼으로 아버지가 콘스탄티누스에게 살해당하고, 율리아누스는 가족과 함께 감금(監禁) 생활을 하였다. 그 때문에 콘스탄티누스와 그가 적극 후원하는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실의(失意)에 빠진 율리아누스에게 접근하여 서로 사랑하게 된 아름다운 여성이, 그리스 정신을 높이 사는 알시노에였다. 그녀는 율리아누스에게 “당나귀의 가족을 뒤집어 쓴 사자가 되어 복수하라”고 말하였다. 율리아누스는 그 말에 따라 마음으로는 제우스와 아폴론 등 그리스의 신들에게 흠뻑 빠져들면서,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운명(殞命)하고, 그 뒤를 이어 로마 황제가 된 것은 율리아누스였다. 사자는 당나귀의 가족을 벗고 공공연히 기독교에 도전(挑戰)하였다. 율리아누스의 머리 위에 “콘스탄티누스의 십자가가 새겨진 거룩한 것발 대신 아폴로 상(像)이 새겨진 것발”이 펄럭

이게 된 것이다.

로마 황제가 된 율리아누스가 맨 처음 한 일은 폐허가 된 올림포스 12신(神)의 신전(神殿)을 건설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기독교를 탄압하였다. 그러나 이미 깊게 뿌리 박힌 이 새 종교를 시대에 역행하여 타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율리아누스는 자기 자신의 영광과 신들의 위신(威信)을 결코 페르시아 대전쟁을 결의하였다. 때마침 아폴론 신전이 불타버려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율리아누스는 굴복하지 않았다.

전세(戰勢)가 불리해지자 그는 “신들은 망하였다. 아니,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다.” 하며 적전에 뛰어들었으나 중상(重傷)을 입었다. 율리아누스는 숨을 거두며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이 내가 이겼다. 지금은 갈릴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라. 그러나 후일(後日)에는 우리들이 이기게 된다. 그 때에는 신들과 동등한 것, 태양처럼 영원히 미소 짓는 마음이 이 세상을 반드시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죽음과 저주를 반길 리 없다.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작 참 생명과 참 행복을 향유(享有)하는 자는 매우 드물다. 그것은 곧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시 27:1), 그리고 참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시 16:2)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는 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Your True ESG Partner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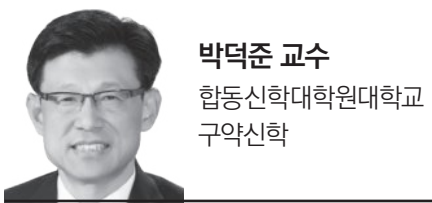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복음으로 읽는 구약 선지서 (17)



**박덕준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신학

“시온의 통치자 여호와”(이사야 33:17-24)

이사야 33:17-24는 회복될 시온에서 여호와가 왕으로 통치하실 때가 어떠할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호와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방나라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을 언약 백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장래에 여호와께서 베푸실 회복을 소망하게 하고 있다.

본문은 여호와를 회복될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처음부터 언약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셨다(사 61-5; 삼상 8:7 참조). 그러나 여호와와 통치를 대리하는 유다의 왕들조차 이방나라들의 위협에 대해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심판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7:1-25; 22:1-14; 39: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심판 이후에 언약 백성을 회복하시고 다시 시온에서 그들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본문은 여호와와 통치가 가져올 시온의 회복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시온이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 여호와를 시온이 보게 될 것이다(17:19).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심판

하실 때, 시온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이방 약탈자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시온은 다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보게 될 것이다(사 22:4 참조).

둘째로, 시온은 다시는 이방나라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20-21, 23).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시온에 안재하시며 자키사기에, 시온은 말뚝이 뽑히지 않고 줄이 끊어지지 않는 장막처럼 안정된 처소가 될 것이고, 넓은 해자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사 32:18 참조). 그 뿐 아니다. 난파한 배 같이 연약하던 시온은 여호와와 함께 강령해져서, 그 장애인들조차 전전의 재물을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셋째로, 시온은 여호와와 정의로운 통치가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22).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재판장”이요 “율법을 세우신 이”가 되셔서 더 이상 불의한 통치자들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사 1:23, 26; 31:4-15 참조).

넷째로, 시온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24).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와의 정계의 매질을 당했었다(사 1:2-6 참조).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사 1:18 4:3-5; 40:2 참조),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실 것이다(사 50:18 참조).

시온을 회복하시고 그곳에서 통치하시겠다는 여호와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심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고백했듯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대로 언약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메시아 왕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눅 1:67-79).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죄악을 용서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후 5:21; 요일 3:5). 또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영원한 통치자로 삼으셨다(빌 2:9-11; 히 12:2; 계 11:15-17). 그뿐 아니다. 예수를 믿는 성

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빌 3:20), 우리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과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셨다(롬 8:35-39).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고난이 지속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야 하겠다(빌 3:20-41).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마 28:18-20; 고 후 5:19-20). <계속>

## 월 70만 원 저축하면 5천만 원 목돈... 3월 추천 공공 서비스

행안부, ‘모바일 잡케어’ ‘청년도약계좌’ 등 선정

행정안전부는 개학과 취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이달의 추천 공공 서비스로 ‘모바일 잡케어’, ‘청년도약계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해 매일 소개하고 있다.

‘모바일 잡케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직업상담 지원 서비스다. 고용24 PC에서만 지원하던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모바일로도 지원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서비스를 실시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직업 설계서 만들기, 취업시장 정보, 추천 직업훈련 정보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직업 설계서에서 프로필과 관심 사항을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AI가 직업군을 추천하고, 여기에 추가로 학력이력 등을 입력하면 취업시장 정보와 추천 직업훈련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만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년 뒤 최대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정

부 지원금이 매칭되며, 이에 대한 이자도 추가 적립돼 만기 기준 연간 9.54%가량의 일반 적금과 같은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혜택이 크게 늘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교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를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평가점수 가점도 주어진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가입 조건은 나이 외에도 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한다.

가입 신청은 국민·신한·하나 등 취급은행 11곳 앱을 통해 매일 비대면 신청 가능하다. 은행별로 금리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확인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 성인(2006년생)이 된 19세 청년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공연·전시 등에 드는 관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오는 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콘서트, 뮤지컬, 연극, 전시 등 최대 15만원의 관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다운 기자

## 지리산 벚꽃길에서 무료 웨딩촬영... ‘숲 결혼식’도 확대

예식 장소 및 인근 역 사이 무료 셔틀버스 운행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이달부터 국립공원 숲 결혼식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한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금속 결혼식으로 2021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청년층, 다문화계층, 노년층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총 133회 진행됐다.

올해는 모집 대상이 확대되고 국립공원 명소에서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된다. 예식 장소와 인근 KTX·버스터미널 부 계층을 대상으로 총 14곳으로, 올해 하반기

부터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월악산 만수로 자연관찰로, 덕유산 덕유대야영장, 팔공산 갯바위 자생식물원, 계룡산 생태탐방원 5곳이 새롭게 추가된다.

국립공원 명당에서 결혼사진을 촬영하는 ‘숲 결혼사진 명소’ 서비스도 시작된다.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 경주 토함산 단풍길, 계룡산 동학산 등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 44곳에서 할 수 있다.

숲 결혼사진 명소에 진입하는 길은 평상시에는 막혀있으나 결혼사진 촬영을 사전에 예약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직원의 안내 아래 결혼사진 촬영을 위한 차량 출입이 허용된다.

자세한 신청·접수 정보는 오늘(5일)부터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knps.or.kr)를 통해 공개된다.

이루리 기자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 장면 ©국립공원공단 제공

## 아동청소년 비만, 모든 걸 망쳐... 불안·우울 ↑, 자존감·학업수행능력 ↓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고도 비만 관련 연구

비만 아동청소년은 자존감과 학업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4일 커뮤니케이터 기반 고도비만 중재 시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으로 박경희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11.4세의 과체중 이상 아동청소년 224명을 대상으로

음식 중독과 정서·행동 문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 중 음식 중독 고위험군 비율은 19.6%였다. 고위험군은 평균 4.05개의 음식 중독 증상을 갖고 있었다.

불안·우울의 경우 고위험군은 56.02점으로 정상군 52.55점에 비해 높았고, 규칙 위반도 고위험군이 55.07점으로 정상

군 51.9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격적 행동 역시 고위험군(52.55점)이 정상군(51.32점)에 비해 높았다. 고위험군은 사회적 미성숙도 55.73점, 주의집중문제 54.09점 등으로 각각 정상군 53.18점, 51.60점에 비해 점수가 좋지 않았다.

적응 척도에서는 고위험군이 50.13점으로 정상군 55.45점에 비해 낮았고, 사회성은 고위험군 48.72점일 때 정상군 52.49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고위험군이 52.42점, 정상군이 55.90점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및 건강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음식 중독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비만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만이 동반된 아동청소년에서 정서적 행동 문제가 동반된 아이들의 경우 음식 중독의 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이해 및 평가, 그리고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다운 기자

성민원

성민원 27주년 기념

2025. 03.19.

성민원

비바사랑

문화축제

초대합니다

주최·주관

성민원 031-397-2051

후원

군포제일교회 군포농업협동조합 산본제일병원 윌스기념병원

협력

기독일보 C channel GOOD TV

가수 윤창기

앙상블 토브

홀리엔젤스

마라나타중창단

송알어린이합창단



##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 5.토지: 2,756m2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2 (139.75평) + α(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넷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 임만재 목사 초청 부흥세미나



**교회여, 다시 부흥하자!**

임만재 목사  
(충주 용원교회 원로)

- ▶ 저서: <날도둑 날강도가 많은 교회> <십일조 안내면 받으러 가자> 외 다수
- ▶ 장신대학원(82기), 목회학박사(맥코믹5기)  
목사·장로·권사 제직 세미나 강사  
사경회 강사, 인문학 강사, 유튜브(임만재TV) 총회부흥회 강사(전)

연락처: 010-9069-3044, 010-3177-6999  
lmj132@hanmail.net

<집회교회>  
창천교회 세계로금란감리교회 강남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영등포교회 포도원교회 포항장성교회 오천교회 구로문교교회  
북대교회 청북교회 대성교회 안동교회 중문교회 인천시연합  
안동시연합 청주시연합 제천시연합 각종 세미나 등 500회 이상

**입고 누르기만 하면 후끈~후끈~ 추위걱정 끝!**

**실속있는 보온, 더 얇지만 따뜻해진 소재**

**보온 발열조끼**

**특별할인 파격행사**

겨울철 출퇴근, 등하교, 군대에서... / 실외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  
겨울 캠핑을 즐기시는 분... 낚시, 골프, 등산가실때...

확실한보온성 / 간편한 버튼 / 세련된 디자인

블랙 와인 네이비(곤색) 아이보리

**파격행사가 ▶ 98,000원(батери 포함)**

색상: 블랙, 와인, 네이비(곤색), 아이보리 사이즈: 90(S), 95(M), 100(L), 105(XL), 110(XXL)

온도조절 3단계 ▶ 고온(적색) 45℃ / 중온(백색) 35℃ / 저온(청색) 25℃  
※ батери 시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입문의 / **010-5260-9517** 신한은행 110-195-067840 예금주: 태영

겨울철 실외에서 근무하거나 일하시는 분들께...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원활한 혈액순환! 하루 2캡슐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항산화 건강까지 하프물개 오메가3

**SELOLUE**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사가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010-5775-2671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절망 있는 말버와 쉬운 문으로 전하는 반전의 에언자적 메시지!"

추천사

장로님께서 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행갑 정교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훈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절망 있는 말버와 쉬운 문으로 전하는 반전의 에언자적 메시지!"



날 새니 뭘 하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독교 철학 (2)

그는 관념론적인 플라톤주의를 경험론과 엮고자 했다. 그는 인간의 관념이 모두 감각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로크에게서 받아들이며, 공간이 하나님의 감각 기관(sensorium)이라는 생각을 뉴턴에게서 받아들인다. 순수한 무(無, nothing)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존재가 없었던 때는 없다. 따라서 존재는 영원하며, 모든 곳에 있다. 그런데 공간이 없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공간은 영원히 존재하며, 결국 신적이다.

그런데 로크의 인식론에 따르면, 존재는 의식에 대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에 매순간 매달려야 한다. 따라서 영적인 것만 실체가 된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물질적 사물이 들어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겼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캠브리지 플라톤주의자와 뉴턴의 생각을 따랐다. A. A. Maurer, op. cit., 460-461면; T. A. Schafer, “Edwards, Jonathan”, in: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8 (Chicago etc: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70), p. 14.

에드워즈의 이러한 형이상학은 존 로크의 생각을 발전시킨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의 철학과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버클리의 저술을 읽고 그의 『존재론』(On Being)을 썼는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버클리의 저술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각을 발전시켰던 것 같다. D. Philips, “Edwards and the New England Theology”, in: J. Hastings (ed.),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 V (New York: T.&T. Clark, 1912), 222면, 225면.

또한 칸트 이전 철학자인 라이프니츠(Leibniz)의 생각과도 매우 비슷해 보인다. 우주가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주장은 잘못 이해되는 경우 범신론으로 이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에드워즈는 그가 배운 일반 학문을 통해 칼빈주의 신학 전통을 재해석했다. 연구 방법과 표현 방식에서는 당시 철학자들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내용적으로는 칼빈주의를 회복시켰다. 방법론적으로는 철학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당대 기독교에 쏟아졌던 비난들을 물리쳤다. 이상현,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4면; 정부흥,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75면.

그는 뉴턴의 우주론과 로크의 인식론을 정통 칼빈주의 신학과 연결하려 했다. H. L. Bond, op. cit., 299면, 301면.

사파에 따르면, 에드워즈는 1)개혁 신학을 뉴턴의 세계관과 연결하고, 2)로크의 경험론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과 연결하고, 3)기독교의 구원 계획과 역사관을 플라톤의 관념론과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과 연결했다. T. A. Schafer, op. cit., 14면.

이 가운데 이 글에서는 로크의 인식론과 그의 신학의 연결점에 주로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에드워즈는 위대한 설교가, 훌륭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시에 훌륭한 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펜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습관이 있었다. D. Philips, op. cit., 222면, 225면.

그는 여름에는 승마와 숲길 산책, 겨울에는 장작 쪼개기 등으로 운동을 대신했는데, 승마와 산책을 하러 갈 때 항상 펜과 잉크를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모하며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기 위해서였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에드워즈는 전인격적 신앙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빛나는 지성과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이성을 강조하면서 감성은 평가절하하던 계몽주의 시대에 살았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이기도 했다. 두 가지 흐름이 서로 대립될 때, 차가운 이성주의와 순수 감정주의로 나타나기가 쉬웠다.

이성주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감정에 치우친 광신으로 몰았다. 실제로 대각성 운동에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에드워즈는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진정한 영성을 가짜 영성과 구분한다면, 영성을 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진정한 영성과 가짜 영성을 구분하는 근거는 성경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준다. 이 진리는 감성으로 느끼는 것만도, 이성만으로 판단하는 것만도 아니라, 이성을 통해 이해하고 판단하고 감성을 통해 느껴야 하는 진리이다. 이를 통해 에드워즈는 이성주의자의 전유물로 여



겨졌던 이성을 사용하여 이성주의의 도전을 물리쳤다. 장호익,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 조나단 에드워즈, 서문강 옮김, 『신앙과 정서』(서울: 자평서원, 20002), 590면.

그가 정신을 집중하고 그가 다루는 주제를 논리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강한 종교적 감정이었다. D. Philips, op. cit., 225면.

에드워즈는 영적 정서와 지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키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정서는 오성 때문에 얻는 깨달음과 실천하려는 의지 사이에 오는 것이다. 깨달음은 머리를, 감동은 가슴을, 의지는 손과 발을 요구한다. 주도흥, 『개혁교회사』(서울: 솔로몬, 1998), 253면.

신앙은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정신뿐 아니라 감정까지 포괄하는 신학적 입장을 정의하려 했다. 콘라드 체리, 주도흥 역,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서울: 이레서원, 2000), 15면.

이 글에서는 에드워즈가 마주했던 당대 문제를 먼저 짚어 보고, 그가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당대 계몽주의 철학을, 특히 존 로크의 경험주의 철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에드워즈가 존 로크의 인식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페리 밀러와 같은 학자는 에드워즈를 로크의 계승자로 여긴다. S. H. Daniel, op. cit., viii면, 20면.

하지만 에드워즈는 로크의 입장을 수정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의 출발점은 개혁주의 신학이었지 로크의 인식론이 아니었다. 이는 오늘날 철학적 신학 또는 기독교 철학이 신학과 교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다’는 신학적 고백이나, ‘모든 곳에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다’는 초대 교부의 말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신약 성경의 권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의 영성과 경건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몰던 계몽주의 철학에 대해 그 철학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길을 택하기보다, 잘못 사용돼는 이성에게 ‘체례’를 주어 올바른 신학 안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자리매김

했다는 점에서, 에드워즈는 균형잡힌 신앙인이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찬양 집회나 심령대부흥회와 같은 집회가 TV 등을 통해 보여질 때 비기독교인들은 거부감을 갖기 십상이다. 겉으로만 보아서는, 시사프로그래에서 문제로 다루는 이단 종파들의 집회 장면과 그리 달라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CCM 콘서트와 같은 공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기뻐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인가? 아니면 공연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해내는 감정인가? 이러한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는 설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설교 말씀에 은혜받는 이유가 말씀 자체의 역사에 있는가?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 기법에 있는가? 아니면 둘 다에 있는가? 이는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한 한국 교회에 던져지는 질문이다. 아직 이 질문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대답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 조나단 에드워즈, 서문강 옮김 앞의 책, 13면. 청교도도서관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Ecclesiastes 3:12 NIV

I know that there is nothing better for people than to be happy and to do good while they live.

- know : 알게 되다, 깨닫다
- there is nothing better : 더 나은 것이 없다
- 전치사 than의 목적어는 ‘to be happy’와 ‘to do good’

- do good : 선을 행하다, 도움을 주다
- while : ~하는 동안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라.

카카오토리, 영어성경 독해 연습

Proverbs 10:24 NIV

What the wicked dread will overtake them; what the righteous desire will be granted.

- the wicked: 악인들,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
- dread: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 overtake: 불시에 닥치다, 엄습(掩襲)하다
- the righteous: 의인들, 의로운 사람들
- desire: 바라다, 원하다

- grant: (공식적으로) 주다, 수여하다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나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카카오토리,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 송태훈 칼럼 세리에서 사도가 된 마태(Matthew)

비난받는 세리였지만, 그 꼼꼼함으로 위대한 복음서를



송태훈 목사

1세기 당시 유대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세리에서, 일약 예수 그리스도가 철야 기도하고 임명한 사도로 그 직분이 180도 바뀐 마태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들어있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세리 마태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선물을 받은 사람도 매우 드물 것이다.

마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처음 부름받았던 장면(마 9:9, 막 2:14, 눅 5:27)과 12제자들의 통합적인 명단(마 10:3, 막 3:18, 눅 6:15, 행 1:13) 뿐이다. 마태, 마가 및 누가복음은 그를 알패오의 아들 레위(헬라어 의미 ‘연합하다’)라고도 표기한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가 원래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면서 레위 또는 마태라는 별칭을 스승으로부터 다시 얻었을 것이다. 선임 제자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별칭 베드로(반석)를 얻게 된 것처럼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을 당시, 세리 마태는 헤롯 안디바의 통치구역인 가버나움에서 매우 가까운 한 세관의 세리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눅 5:27). 그 곳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선의 징세원(徵稅員)으로 성실하게 종사했다. 로마 제국이 직접 파견한 징세 청구인이 라기보다는 유대의 조그만 지방관리 또는 행정을 관리하는 대리자로 세금을 징수했다. 마태가 당대의 대부호(大富豪)라고까지 생각하는 않지만, 상당히 부유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제자로 헌신을 결심한 이후, 자신의 집에 수많은 사

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푼 것은 그것을 짐작하게 만든다(눅 5:29).

어느 날,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는 “나를 좇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모두 버리고 스승의 뒤를 쫓았다(마 9:10, 막 2:14, 눅 5:27, 28).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갑자기 심적 변화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설교할 때에 조용히 방문해서 복음에 감화를 받고 있다가, 그 분이 제자로 부르자 곧바로 따랐을 수도 있다. 마태가 제자로서 소명을 받은 시기(연월)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보훈 설교가 있는 이후로 추정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하기 시작한 이후 얼마 안 돼서 마태가 초기의 제자로 헌신했다.

12명의 사도 명단에 마태의 이름은 항상 두번째 그룹의 4인조 중에 포함돼 있다. 전체 순서로 보면 일곱번째에 그 이름이 명기되어 있으며,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마태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서에만

여덟 번째에 이름을 올린다. 마태복음은 사회적으로 달갑지 않은 세리라는 부끄러운 그의 직명을 일부러 부각시킨다. 1세기 당시 세리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견지에서 국민의 배척과 더불어 멸시 천대를 받았다(마 21:31, 막 2:16). 마태는 매우 진실하고 겸손한 사도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마태는 원래부터 말이 별로 없는 과묵한 사람으로서 말 보다는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가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후 그가 입을 열어서 발언했다는 기사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늘 조롱받았던 자신이 당대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리진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했다. 자신의 주장을 공동체에 섞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

자신의 헌신 기념으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베푼 잔치에는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마태가 베푼 초청잔치 석상에서

바리새인들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0-13, 막 2:15-17, 눅 5:29-32)”고 청중들을 가르치며,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세리 마태는 성령 강림을 대망하는 12명의 사도들 틈에 끼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행 1:13). 예루살렘 초대교회 설립 멤버로 헌신하며 최선을 다했다. 아마도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팔아 어려운 초대교회에 헌금하므로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초대교회 설립 이후, 세리 마태에 대한 소식은 신약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 그가 순화하며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전설이 있다. 서방교회는 마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말하며, 동방교회 측은 복음사역을 감당하다

노년에 평화롭게 영면(永眠)했다고 전한다.

젊은 날 마태는 비겁한 세리(또는 낮은 직위의 지방관리)로 이웃과 타인들을 괴롭히며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세리 마태는 자신의 재산과 지식과 인격을 모두 교회에 드려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임보다는 몸으로 사역을 실천하는 행동자적인 교회 지도자로 변모했다.

자신의 것을 전혀 헌신하지 않고 입으로만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 매우 쉽다. 말 보다는 자신의 것을 공동체에 드리며 손해를 감수할 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공동체에 드리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은 과거에 저질렀던 큰 잘못도 해결 받게 된다. 은퇴 시점에 이르러 돈과 사적인 욕심 때문에 부끄러운 추태를 보이고 있는 작금의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세리 마태는 할 말이 매우 많을 것이다.

##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관계

권혁승 칼럼  
‘날마다 말씀 따라 새롭게(91)’



권혁승 박사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마지막 과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인간 창조이기보다 한 가정의 창조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창 1:27). 그런 점에서 인간 역사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인간의 창조를 제시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

와 ‘네케바’인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뜻으로 사람 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인간은 성적으로 구분되는 남자의 창조를 강조한 것이다.

그에 비하여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면을 보여준다(창 2:23).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쉬와’와 ‘아샤인데’, 이는 ‘남편’과 ‘아내’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곧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남녀이다. 그런 점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살아 있는 생명체 아담을 만드셨고(창 2:7), 후에 그 아담을 통해 그의 아내를 만드신 것(창 2:22)에 잘 드러나 있다. 전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후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면 한 가정의 중심인 남편과 아내로서의 인간은 어떤 관계로 정의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자, 아담

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고 했다.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에 대한 최고 최대의 표현이다. 가정은 사랑의 끈으로 묶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지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나눌 수 없다(창 2:24). 그것은 예수께서도 강조하신 점이다(마 19:6, 막 10:9).

창세기 2장은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이른 아내와 남편을 ‘돕는 배필’(2:18)이라고 규정한다.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그도’인데, ‘도움’이라는 뜻의 ‘에제르’와 ‘그와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다’는 뜻의 ‘케네그도’가 합친 합성어이다. 전자는 ‘돕는’으로, 후자는 ‘배필’로 번역하였다.

부부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관계이다. ‘케네그도’가 그런 점을 잘 드러내 준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이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 그에 비하여 ‘도움’을 의미하는 ‘에제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기능적 분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 동등성 위에 서 있지만, 가정의 효율적인 유지와 조화를 위하여 서로 다른 기능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인격적 동등성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에 대한 강조라면, 상호보완성은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 2:3)라고 한 것이, 곧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지적인 것이다.

‘돕는 배필’에서 ‘배필’은 기본 바탕이고, ‘도움’은 그 바탕 위에 드러난 실제라고 할 수 있다. ‘돕는 배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제르 케네그도’에서 ‘케네그도’는 선행 명사인 ‘에제르’를 수식하는 전치사 구이다. 이는 ‘에제르’가 이 단어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성의 ‘도움’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부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면,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 동등성이 바탕으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사도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엢 5:22)고 하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엢 5:28)라고 한 것도 그런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서로의 ‘도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상하로 구분되는 계급적 관계에서의 복종이 아니다. 그것은 남편의 아내 사랑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 은혜 한 장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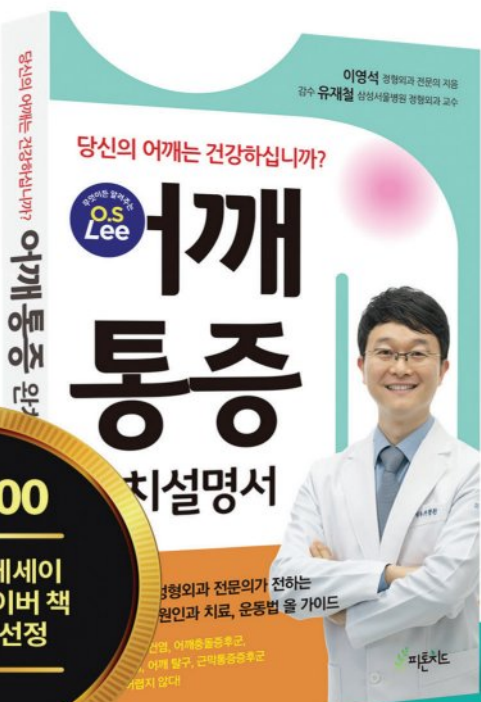
but let him who boasts boast about this: that he understands and knows me, that I am the LORD, who exercises kindness, justice and righteousness on earth, for in these I delight," declares the LORD.

Jeremiah 9:24

基督日報  
기독일보 www.cdaily.co.kr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교회오빠 사렘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4)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 라고 했지요 유령이 뭐가 유령입니까? 몸 은 죽고 그 영혼만 살아 있으니까 유령이 라 하지요 만지 아니하는 사람은 혼백이 라고 그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별해 보아야 됩니 다.

그러면 몸은 죽었는데 영은 살아 있으 니까 유령이라 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 예 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 다음에 죽으 면 천당 간다는 것 보니까 영은 살아 있 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지 못 하고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몸 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유령이지요 내 자신들이 유령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마22:23)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지 요 우리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 하면 이단이라고 대뜸 욱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날의 받을 그 상과 영광에 합당 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그들을 이단이 라고 욱만 하지 말고 부활의 날에 받게 하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활

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죽어 있는 유령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 입니다.

그 아이를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냐라 하고 주니까 어머 니가 내가 이제야 그러면 보라 네 아들 이 살았다 보라 할 때에 그 여인도 자기 가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그 생명으로 살아났습니까? 못 살아났습니 까?

자기 아들 살려 주는 것만 보았습니 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 났습니까? 살아났단 말이지요 너도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보라 말 입니다.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났지 않았느냐 자기가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나 가 지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심 받은 그 아들을 보라 말합니다.

여인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 기도 하며 말씀하셨지요 부활로 받았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 리심 받은 것을 말씀했는데 왜 부활이라 고 했느냐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죽 었다 살아났으니까 소생했다 회생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자들은 부활로 받았다고 하셨습니다(히11:43)

그러면 부활한 몸은 안 죽지요 이 여자 들은 뭘 보았느냐 자기 오라비가 열매 없 는 죽음 가운데 있다가 열매 맺는 생명 으로 살리심 받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오라비만 살리심 받은 것 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는 자신도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지요 그러면 그 열 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난 그 몸은 죽습 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지요 왜 안 죽느냐 그 열매가 영원한 것이니까 죽지 아 니하는 몸입니다. 부활로 받았다는 것은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가 이 다음에 부 활할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열매 없는 죽 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몸으로 그 생명 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 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 는 몸으로 부활로 받은 것입니다(요5:25)

부활로 받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또 보 게 하셨나요 더 좋은 부활을 보게 하셨 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이라

고 한 것 보니까 그 보다는 못한 부활도 있다는 말이지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좋은 부활은 무엇이고 더 좋은 부활은 뭘니까?(히11:35)

좋은 부활은 심판 재림 때에 부활하는 부활이고 더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보게 하신 나라 오늘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도 보게 하시는 것이지 아직도 그 생명을 보지 못하면 첫째 부 활의 영광은 구경도 못하리라는 것을 우 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는 하나님의 사 람으로 보았지만은 열매 없는 죽음에서 열매 맺게 하신 그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 지 않게 하리라 하셨다가 가루가 떨어지 지 않게 하셨지요 그것도 진실합니까? 진 실하지 않습니까?

그 때는 그것이 제일 진실한 줄 알았었

는데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심 받 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실하신 것을 바로 알았던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실한 것을 바로 볼 때 에는 이제부터는 가루 그릇의 가루가 떨 어지지 않게 주시더라도 그 가루 띄은 무 슨 가루 띄으로 먹을까요 이제 생명의 띄 으로 먹게 되었느냐라 이제 살았다는 말 입니다.

이것이 교회라 말입니다. 엘리야와 같 은 교역자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으로 그 생명들을 살리실 것이고 그 생명 으로 살리심 받은 그들이 이제야 여호와 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 내가 이제야 한 생명을 살렸고 이제야 내 가 무엇으로 주시든지 마음놓고 줄 수 있 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좋은 것으로 주셔도 배부르게 하셔도 영광된 열매 맺게 하신 몸으로 살 려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음식으로 받아 먹 을 것이고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고통을 주시더라도 환난을 주시더라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하게 하시 는 그 생명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내가 되게 하신느니라 그것을 말씀 합니다.

내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섰느냐 엘리야 와 같이 내가 세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 다면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복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면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들을 살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루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띄 을 먹을 때에도 생명의 띄으로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 서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것이 교회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하고 있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먼저 교역자 입장에서 는 내가 엘리야의 자리에서야 되고 교인 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 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내 생명을 살려 무엇으로 주시든지 아버 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 하여 나도 살 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 시 기 바랍니다. 창굴산 봉목사 제공

### 은혜의샘물

##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마셨다 (2)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하나님의 나라 의 축복과 은총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종말론적 식사입니다(Anticipation). 성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입니다. [리마문서]는 제 22 항에서 “성만찬은 창조물의 궁극적인 갱신으로서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한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앞당 김은 막연히 앉아서 기다려 얻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에 참석할 때 버림받은 이들과 연대하는 소명, 그리스도의 사 랑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소명을 받 아”(24항)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동참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25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우리와 함 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누

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미리 맛보고 누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처럼 행복하게 즐겁게 착하게 진실하게 찬양 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정의롭게 공평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세시민속(歲時民俗) 가운 데 대보름 민속으로 원을 푸는 떡(解懸 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해를 살다보 면 이해(利害)에 얽히건 오해에 얽히건 간에 누군가와 사이에 원망이 생기 게 마련입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불편 한 관계를 갖는다면 파자에 괴로운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보름 명 절에 그 불편한 관계를 말끔히 씻기 위 해서 해원떡을 만들어 산사(山寺)의 스 님을 통해서 주고받음으로서 지난해의 불편했던 관계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떡 을 통해서 원수된 관계를 풀고 서로 화 목 하는 길을(解怨相生) 모색했던 것입 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

어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입 니다” 라고 하였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 또 자 연과 불편했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진히 해원떡이 되었고, 이 떡으로 인해 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 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과 피에 참 여 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 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겠 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 우스는 97년경 로마로 붙잡혀 가면서 일곱 편 of 서신을 썼습니다. 그가 쓴 에 베소 서신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주의 만 찬을 “불사(不死)의 약(藥)이요, 죽음의 해독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또 말하 기를, “만일 너희들이 주의 만찬에 자주 모이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떡과 잔은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무 너뜨리며, 죽음의 독을 풀며, 영생을 주

는 불사약이 됩니다. 주께서, “이것을 행 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유언으로 부탁 하셨습니다. 이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은 예수의 제자들로서 마땅히 행할 복된 일인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이 기독교 예배를 감사제, 기쁨제, 기원제, 화목제, 종말론 적인 축제로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 다. 성만찬이 없이는 이와 같은 의미를 예배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피상적이고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만 찬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과하지 아니하며, 성만찬 예배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성만찬의 시행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가 한 차원 높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 한국도로공사 창립 55주년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국가경제와 함께 성장한 한국도로공사는  
국민 생활상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매일 500만대가 이용하는 행복한 고속도로,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ex 한국도로공사



# Kyrie eleison



이선중 지휘자

(눅 18:13)

10월 마지막 주일은 개신교의 생일이랄 수 있는 종교 개혁주일이다. 이 종교 개혁주일에 오히려 구교의 현주소와 그들이 부르는 미사 가사 하나를 목격한다. 필자가 사는 오늘날 말씀을 중시하는 미국의 개신교는 80대 노인들 10여 명이 박물관(?) 같은 교회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예전을 중시하는 가톨릭 성당은 몇백 명씩 가득 찬다.

해마다 무교절(Moundy Thursday)과 대강절에 찬양 예전을 관찰하러 이웃 구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개신교가 구교 같고 구교가 개신교 같다. 두 종교 다 늘지는 않지만 줄여가는 성도의 속도는 다르다. 구교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고 영감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은 분명하다. 무엇이 이들의 급격한 퇴락을 막고 있는 걸까? 나는 이것이 예전을 중시해서 라거나 말씀을 중시하는 것 때문이라는 건조한 이론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다. 개신교에도 교단에 따라 예전을 더 또는 덜 중시하는 교단들이 있다. 하지만 성도들이 줄어드는 속도는 대부분 대동

소이다.

구교와 신교의 차이는 다만 예배와 삶을 근접시키는 접촉점에 어느 쪽이 더 진정성으로 마음을 발화시키는가 하는 점에 다르다. 오늘날은 관점을 달리해서 신교의 단점을 먼저 자세히 보려고 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개신교는 구교보다 시끄럽고 음악 수준도 떨어지고 말씀이 점점 설교자 수준으로 내려앉아 있다. 청중은 하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의 개인기 변사 솜씨로 손님처럼 남의 얘기를 듣고 있다. 예배라기보다는 모든 예전을 설교자 중심으로 꾸며놓고 유일한 마이크 권력을 가진 설교자의 말잔치로 가득 차 있다. 말이 넘치는데 말씀이 회중과 하나님 사이를 여전히 격리한다. 설교(월, 말잔치)가 예배라는 등식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개신교의 종교 개혁은 설교자의 지식과 말씀 전달력을 중시한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도의 마음과 직통하여 소통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간에 행승의 말재주로 개입한 만담류의 얘깃거리를 듣자 한 게 아니다. 불교에는 불법을 맡은 자는 행승보다 선승이 하게 한다. 가톨릭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가까운 자가 말하게 한다. 하지만 오늘 날 가톨릭은 선승은 없고 행승이 선승 흉내를 낸다. 때문에 행승의 무지와 교만과 허세가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아직 구교는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음악으로 데려가고 진정성 있는 예전에서 꽃피는 전통을 고수한다. 개

신교는 설교가 개인의 능력으로 데려가고 아직 구교는 말씀의 각 단어가 엄격하게 예전이라는 형식에서 선포된다. 한 예를 들어보자.

키리에 에레이존으로 시작하는 당시 유일한 기독교였던 로마 가톨릭은 13세기 초 미사 전례 가사를 정했는데 그리스어 예배 공식큐리오스 에레에손, *Kyrie eleison* Χριστ λησου*Kyrie eleison*이 라틴어 미사(kyrie eleison)에 헬라이어 소리글이 그대로 채택되었다. 의미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이다. 이는 “주, 주인”을 뜻하는 kyrios의 호격형인 kyrie에서 유래하였다. 키리오스도 여러 가지 역사적 변화를 거쳐 왔는데 만자는 동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서유럽으로 이어진 다양한 어근의 의미는 크게 두 개의 의미로 축약된다. ‘구명’과 ‘부풀다’라는 뜻이다. 짧게 요약한다면 주님, 또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무엇을 산출하는 곳 또는 발화하는 의미로 주의 임재 또는 주님이 계심이 존재하는 모든 정황에 있는 공동공간감의 의미로 사용했다. 주님이라고 그 이름을 호칭할 때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 어떤 형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부풀어 올라 주변을 채우는 몸 감정을 해석한 단어로 볼 수 있다

‘불쌍히라는 Eleison은 가난한, 불쌍한, 상처 난, 불행한 아에 대한 매우 긴급한 자비와 호혜의 의미로 고도로 흥분된 상태의 단어다. 이 의미가 크게 예배자의 영감을 일으켜 오랜 세월 예배자들에게 큰 고백의 의미가 된 것은 인간의 오만과 교만이라는 자기중심성이 완전히 죽으

면서 주의 영이 일어나 큰 영감의 선포적 파장에 의한 누적된 경험이 토착되었다.

기원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 세리의 기도가 원형이다.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세리의 기죽은 기도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없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자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마음이 이런 기도에도 움직인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낮춤이 기도자의 무를 수준이라고 본 것이다. 예배는 진정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자기 채찍을 중심에 둔다.

‘키리에(주님, 부풀다)와 ‘에레이존(자비)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주체가 움직인다. 이 두 주체 사이에는 용기와 파멸이라는 이질적인 의미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키리에’는 부풀어 주변을 채우는 곳이라면 ‘에레이존’은 자기를 죽여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취급하려 한다.

주께서는 흥하시고 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지점에 도착한 두 마음은 역설적으로 소통의 삼투압이 같아진다. 두 단어는 이 연결된 통로로 옮겨놓고 예배의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피조물의 생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경건하고 진실한 태도다. 주인 앞에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주인의 주인 됨을 가장 높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주인이 아닌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체성(주인의 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다. 주인은 인간의 존재가치의 위치를 그 모든 영예와는 정반대에 있는 가장 낮은 지점에 자발적으로 낮추게 함으로 종이 자닌 가장 진실의 자리 바로 그 위치야말로 능력 발화 지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그를 예수는 자신의 나라 중심으로 가져가신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설이요 그 단면이다.

하지만 오늘날 말씀을 중시한다 하는 예배하는 교회는 어떠한가? 설교자의 기호와 교회의 재정 능력에 따라 오케스트라와 찬양팀과 조명과 동영상 같은 것으로 쇼를 한다.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어도 대형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사람을 끌어모으고 따라서 전도 선교 모두 성장한다고 착각하게 한다. 전문 음악가들의 연출에 의해 찬양대가 몇백 명을 넘어 세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라. 악보도 보지 않고 노래하는 압도하는 거대한 사운드와 음향 전문 엔지니어의 공동 환각에 빠져 놀아나고 있다. 나는 이 쇼에 손가락 하나 더 놓고 그 사이에서 자기의 입맛에 맞출을 하는 설교자의 모습을 또한 본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과 말씀은 사라지고 없다.

## ◆이선중 지휘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

VKCC 지휘자 / 성서 번역가

## 값을 치름

### 마태복음 13:31-33, 44-52

이 글은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중요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비유, 감춰진 보물과 귀중한 진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성가대에 분명히 적용되는 하늘 왕국의 삶에 대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큰 가치에의 헌신에 대한 즉각적인 통찰을 준다. 보화가 감춰진 밭에 지불된 값은 아름다운 진주에 지불된 값과 비슷하다. 두 경우 모두 발견자는 보물을 얻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았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교회에서 성가대가 되기 위해 그러한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지불해야 할 헌신의 대가가 때때로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을 성가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 중 하나로, 인지된 또는 실제 노래 능력 부족 다음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우리는 성가연습시간이나 예배에 접치는 가족 일정 때문에 갈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성가대에 참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요구사항 또는 자녀의 일정도 한몫한다. 아무리 헌신적인 대원이라 해도, 피치 못하게 성가대 연습이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각자는 우리의 결심을 자비하게 하는 유혹에

대해 계속 경계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음악적 실력이 뛰어나 때때로 연습을 빼먹을 여유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성가대원들의 헌신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자세는 경계해야 한다. 천국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화합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요구한다.

### ◆Genevieve and Hermon DeHoog

크리스찬 교육과 교회음악 등 교회의 여러분야에서 섬기고 있다. Genevieve는 지역 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그들은 Georgia 주의 Sugar Valley 에서 종교수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다시 처음에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냄새나는 자신의 모습 앞에 자지러지는 자기 환멸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흥분만 하고 있으면 백화점 환자가 된다. 집에서 굶고 있는 자녀와 아내를 두고 자신은 백화점에서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홈리스와 무엇이 다른가?

구교나 신교나 예전을 지휘하는 교회 음악가는 백화점이 아니라 언제나 이 자기 환멸의 자리에 자신의 영혼을 데려갈 때 그 음악이 초라하고 남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찬양대원이 알고 회중이 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노래자의 가치는 오직 그 낮은 지점을 나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있어야겠다고 다짐하여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색채를 사용할 때 예배는 가장 신적 행위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아름다움과 값음과 힘이 그곳에 있다. 언제나 교회 음악가는 그 자리에 내려앉아서 주님의 품에서 나는 영혼의 부풀림을 즐기며 오늘 매 순간을 예배로 살 때 주께서 주변의 예배자가 함께 산다 하셨다.

## # 찬양한 보물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돌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기도, 뮤직마루

## 종이를 펼치면

##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 브루클린 태버넬클 콰이어, 새 앨범 ‘I Will Not Be Moved’ 발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브루클린 태버넬클 교회(담임 집 심발라 목사)에 소속된 찬양 팀인 브루클린 태버넬클 콰이어(Brooklyn Tabernacle Choir)가 새로운 앨범 ‘I Will Not Be Moved’를 발매하며 은혜로운 찬양과 경배의 세계로 청중을 초대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P는 이번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자 앨범의 타이틀곡인 ‘I Will Not Be Moved’부터 마지막 곡 ‘No Other Name’까지 영적 감동이 가득한 찬양들로 채워져 있다고 밝혔다.

CP는 특정 곡만 돋보이는 일반 앨범과 달리 타이틀 곡인 ‘I Will Not Be Moved’는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는 구성으로 준비된 찬양의 잔치와 같다고 밝혔다. 특히 그레미상 수상 경력을 지닌 브루클린 태버넬클 콰이어의 32번째 앨범에는 오랜 기간 음악을 이끌어온 지휘자 캐롤 심발라(브루클린 태버넬클 교회 집 심발라 목사의 아내)사모의 영적 통찰력이 깃들어 있다.

CP는 앨범 발매를 기념해 열린 프리미어 콘서트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밤 뉴욕 브루클린 태버넬클 교회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콘서트에서 청중은 콰이어가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한다. 특히 두 번째 곡 Spirit Fall Down이 연주될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파지는 순간이 연출됐다.

CP는 이날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과 초청객들



브루클린 태버넬클 콰이어의 멤버들이 지난 28일 열린 프리미어 콘서트에서 열창하고 있다. ©Brooklyn Tabernacle

도 같은 영적 분위기를 체험하며 예배 중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경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찬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 심발라 목사는 즉흥적으로 보이는 제단 조정을 열었고, 많은 이들이 머뭇거리기 없이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심발라 목사는 “간단한 말을 전하고 싶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원한다면 명심하시길 바란다. 하나님께는 개신교, 가톨릭, 오순절, 은사주의, 복음주의, 루터교 같은 구분이 없다. 그런 단어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자녀들이 있을 뿐이고, 아직 자녀가 아닌 이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CP는 이후에도 브루클린 태버넬클 콰이어가 Forever We Will Sing, I Thank You Jesus(배비 메이션 피쳐링), His Mercy Is More 등 앨범 수록 곡을 차례로 선보이며 은혜로운 밤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CP는 브루클린 태버넬클 콰이어의 이번 앨범이 다양한 스타일의 찬양을 조화롭게 담아냈다고 밝혔다. You Keep on Blessing Me는 신나는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Fill My Cup과 How Jesus Loves(타란다 그린 피쳐링)도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마지막 곡 No Other Name은 반복해서 듣고 싶을질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승연 기자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지지 다큐 ‘힘내라 대한민국’ 절찬 상영 중

이념 갈등과 국가적 위기 조명…

개봉 나흘 만에 2만 관객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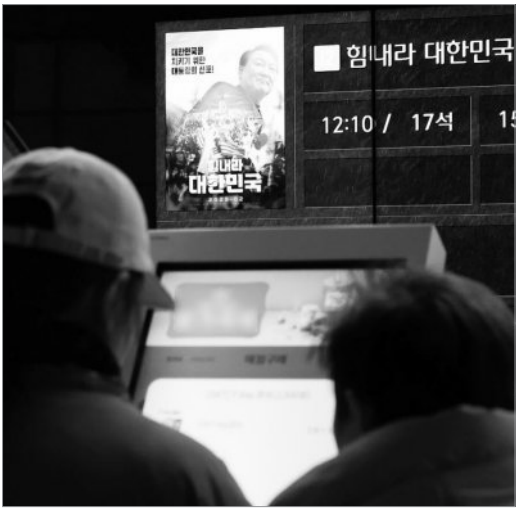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극장에서 개봉하며 주목받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힘내라 대한민국’은 개봉 나흘째인 2일에는 기준 누적 관객 수 2만 2223명을 기록했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남북한 이념 대립의 역사적 배경을 조명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와 연관 지어 분석하는 역사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갈등이 초래한 민족적 비극을 되짚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흐름을 다층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계엄령을 주요 소재로 삼아 국가 안보와 정치적 상황을 조명한다. 영화 제작사 측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정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영화 관계자는 “포스터에 등장하는 광화문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국민들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서울시내 한 극장에서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상영되고 있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난달 27일 개봉했다.

것”이라며 “이 장면을 통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1분 36초 분량의 예고편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는 장면과 함께 전광훈 목사, 배우 최준용, 강사 전한길 등의 모습이 포함됐다. 영화는 이러한 인물들의 시각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결정을 조명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정치사회적 상황을 분석한다.

이나래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하나님의 시선	50 GOODTV 오늘의 찬양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새벽예배 (한성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00 장준하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니니까(3회) 4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50 김한기 목사의 상한 심령의 치유
	6:00	00 새벽을 말함과 함께-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말씀/성령의 새바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00 새벽을 말함과 함께 (하늘비전 오영택) 30 생명의 말씀 (부산초량 김대훈)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83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7회)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 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30 휴먼네트	00 CTS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 말씀 (포항장성 박석진) 50 생명의 말씀 (창원상남 이창교)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실황 (이필산 목사)
	8:00	20 신앙예세이 30 [생방송] 오늘의 정원	20 다큐 더 로드 5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니니까 - 백석대 장준현 총장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정감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 신앙예세이 30 [생방송] 오늘의 정원(45회)	00 성지가 좋다(472회) - 사도바울의 4차 전도여행 / 디도 기념 교회 30 비전메시지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9:00	20 [드라마] 더 초존	30 마음을 나누다 이십점심 50 비전설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	0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우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20 [드라마] 더 초존(7회)	00 THE 공금(1회) - 진화론을 과학으로 믿어야 하나요? 4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465회)
	10:00	40 사인사색	20 힐링송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인이 함께 드리는 수요일예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00 2024 다나엘기도회 (김효진 사모) 40 사인사색	00 선교는 지금(19회) -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5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오후	11:00	1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30 말씀의 생터 화광교회 윤희곤 목사	1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50 아령욱 박사의 앎을 이기는 건강 바이블	1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필리핀 / 장현수 목사, 에스페란사 목사)	00 소문난 성경교실(436회) - 오택현 교수: 첫 번째 10강 왕들을 평가하다 (여로보암 2세 VS 아모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264회) 50 우리 함께 찬양해(52회) - 행복교회 2부
	12:00	00 CTS 뉴스 20 신앙예세이 30 생명의 말씀-유영만 목사(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관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00 CTS뉴스 20 신앙예세이 30 생명의 말씀 (하늘중앙 유영만)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 - 구약 50 말씀의 창 (마라나타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백세특강	00 말씀의 생터 군포사랑의교회 성관용 목사 30 말씀의 생터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생명의 말씀 <대구반야월 이승희> 30 백세특강 (김익신 박사 4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142회) 30 말씀의 창 (구례제일교회 김명석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GOODTV 특별간중 2024 다나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은누리교회 수요일예세이[지]	00 [생방송] Calling GOD(2216회) - 김대성 목사 50 내가 매일 기쁘게(3491회) - 이재갑 교수	00 백석의 생터(15회)
	15:00	4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4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필리핀 / 장현수 목사, 에스페란사 목사)	00 2025 명성교회 3월 특별새벽집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 - 구약
	16:00	30 생명의 말씀-이상문 목사(두란노교회)	00 우리의 지식살롱 30 말씀의 생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30 생명의 말씀 (두란노 이상문)	00 내 삶의 행복(145회) 50 김한기 목사의 상한 심령의 치유
저녁	17:00	00 사랑의 말씀-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마라톤	00 말씀의 생터 순복음측복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생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3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00 사랑의 말씀 (오정현)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 3분 마라톤	00 성지가 좋다(472회) - 사도바울의 4차 전도여행 / 디도 기념 교회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선우웅 목사(이룸교회) 30 신앙예세이 40 부흥여게인	00 행복플러스 25 아베스의 기도 50 더 메시지	10 로잔대회 10대 이슈 한국교회 선교 전망 좌담회 50 2023 한소망교회 감사특박	00 생명의 말씀 (이룸 선우웅) 30 말씀노트 40 부흥 여게인	30 말씀의 창 (선교중앙교회 박태권 목사)
	19:00	30 광림의 시간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50 2023 한소망교회 감사특박	30 광림의 시간 (김정석)	00 말씀의 창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힐링스토리 10 말씀의 생터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이단사이판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월드뉴스 50 저스트 텐 미닛 (위러브)	30 생명의 말씀 (세한 주진)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서울은혜교회 김대규 목사)
	21: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CTS 뉴스	50 GOODTV 뉴스0	00 청동염광교회 주일예배	00 내가 매일 기쁘게(3490회) - 장경현 목사 가족 50 CTS뉴스	1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111회)
	22:00	20 백설기	10 오 자유여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휴먼네트	2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37회)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465회) 20 소문난 성경교실(433회) - 오택현 교수: 첫 번째 7강 왕들을 평가하다 (이사 왕과 산당)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 - 구약(21회)
저녁	23:00	20 바이블프로젝트 30 사인사색	10 GOODTV 특별간중 2024 다나엘 기도회	00 J.D. 그리어의 깨어진 사람들과 위대한 믿음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바이블 프로젝트(87회) 30 사인사색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199회) 50 리바이츠 워십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매일 주와 함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00 Calling GOD(2216회) - 김대성 목사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사랑의교회 하-부님은 사랑이시라 (오정현 목사)
	1:00	00 오늘의 정원(45회) 50 [워킹온더바이블] 성지탐방	10 명사들의 경강 40 GOODTV 시니어 마가복음 2부	0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00 오늘의 정원(45회) 50 [워킹온더바이블] 성지탐방	00 맛있는 심방(9회)
	2:00	10 2024 다나엘기도회	10 GOODTV 특별간중	20 [말씀] 윤길중 목사(영등포교회)	10 2024 다나엘기도회 (김유비 목사)	00 우리 함께 찬양해(52회) - 행복교회 2부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 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13회)
저녁	3:00	0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50 이영훈 목사의 힐링스토리	00 오 자유여	00 [Global Sermon] J.D. Greear's The Book of James : The Gospel from the Outside in 30 [말씀] 류용렬 목사(와성통증중앙로교회)	0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필리핀 / 장현수 목사, 에스페란사 목사) 50 이영훈 목사의 힐링스토리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내 영혼의 찬양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김선도 감독) 20 오늘의 양식 30 내 영혼의 찬양	00 말씀 관통 - 이음 목사의 성경 맥잡기(415회) - 고린도전서 1장 맥잡기 8 40 힐링드림 회복(701회)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출산 걱정은 덜고, 가정의 행복은 더하는

# 경북 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

안심하고  
내 가게를 맡기고,

내 아이와 가족은  
보듬으세요!

**지원대상** 25년도 출산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 경북에 속함
- ② 출산일 기준 1년 전 사업장 운영 및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일 것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액** 최대 12백만원

※ 실지급한 인건비 내 최대 월2백만원 x 6개월간

**신청방법** 경상북도 「모이소」앱 소상공인관

**신청기간** 2025. 1. 20.(월)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절차**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  
청구

**문의사항** 1800-8730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

